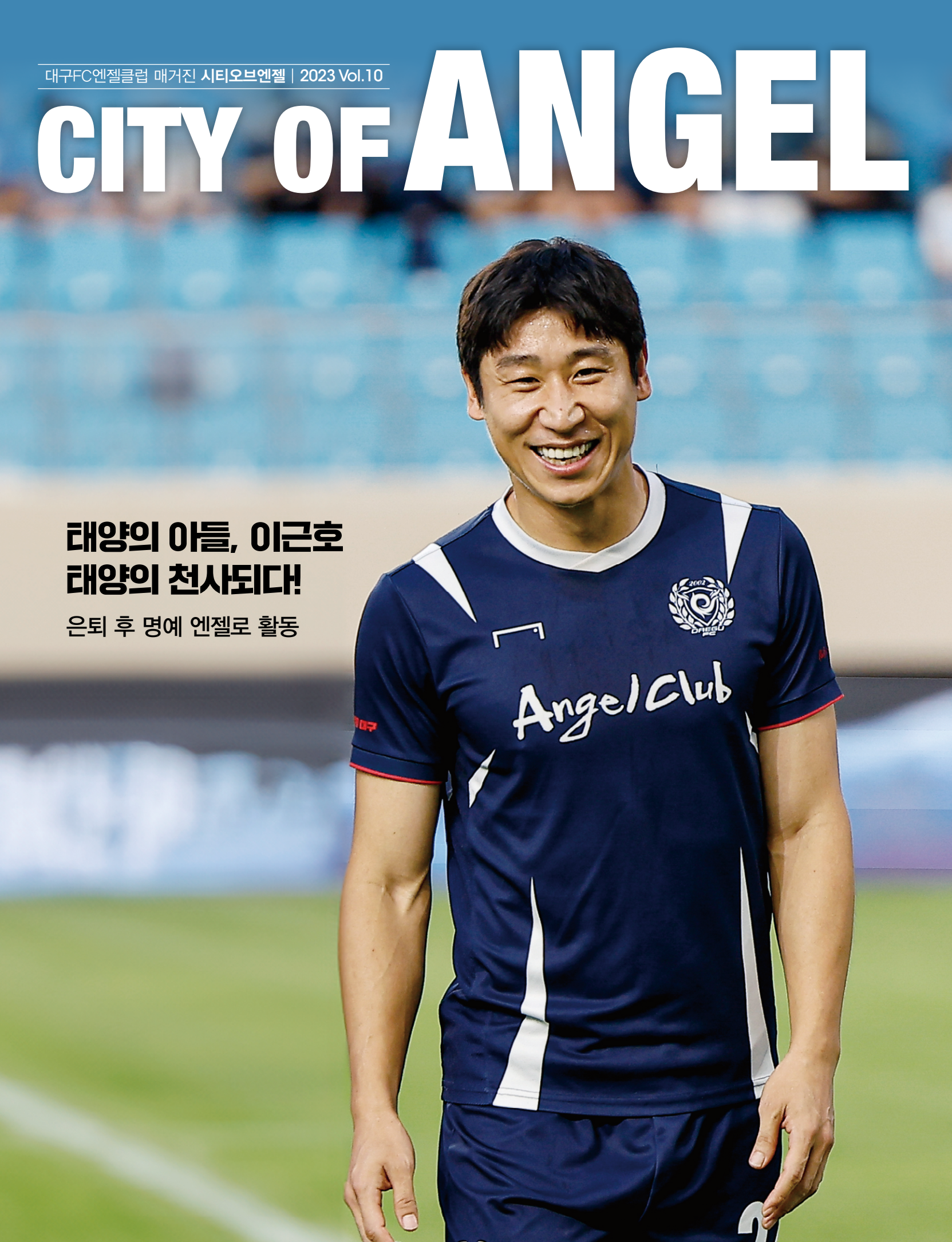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 | 2023 Vol.10

CITY OF ANGEL



태양의 아들, 이근호 태양의 천사되다!

은퇴 후 명예 엔젤로 활동



모든 순간이 행복할
당신의 곁에 언제나,

iM뱅크
DGB대구은행



Bareumi Hotel Inter-Burgo

아름다움과 아늑함이 공존하는
바르미 인터불고호텔



호텔에서 놀자 객실패키지

59% OFF
PREMIUM PACKAGE



~~₩824,000~~ 정상가 기준
주중₩335,000
주말 및 공휴일 전일 ₩385,000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호텔조식(2인) ⊕ 사우나 또는
인피니티수영장(2인) ⊕ 석식2인 (더뷔페 or 심비디움) ⊕ 프리미엄 치맥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212, Palhyeon-gil, Suseong-gu, Daegu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회장과 조태근 영스카이본부 상임이사가 이근호 선수에게 은퇴기념 조각품과 명예 엔젤 위촉패를 각각 전달했다. 기념 조각품은 이경옥 도예가가 제작 한 것으로 이근호 선수의 별명 '태양의 아들'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작품명은 '빅뱅 시리즈 중 태양'이다. Photo by 대구FC

태양의 아들 이근호, 태양의 천사로 훨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엔젤클럽에서도 기억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엔젤클럽의 숙원사업이었던 엔젤동산 조성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했던 엔젤클럽브랜드데이, 그리고 대팍의 소중함을 일깨운 '대팍 가는길 쓰담걷기' 이벤트 등 의미 있는 행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구FC 역시 올해 11경기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2년 만에 파이널A에 올라 강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엔젤클럽에서는 한해를 정리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 매거진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특히,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며 대구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이근호 선수를 표지에 올렸습니다. 이근호선수는 지난 12월3일 2023년 K리그1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경기 종료 후 팬들과 함께 했고, 이근호 선수도 대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엔젤클럽 역시 모든 엔젤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념품은 이경옥 도예가가 제작한 작품으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애칭을 모티브로 했습니다.(작품명 '빅뱅 시리즈 중 태양') 무엇보다 이근호선수는 은퇴와 함께 '명예엔젤'로 활동하기로 해, 또 한번 대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근호선수는 고향이 대구가 아닙니다. 인천 부평고를 졸업하고 프로팀 입단도 2004년 인천유나이티드에서 했지요. 2007년 대구FC의 부름을 받았고, 첫 경기부터 2골을 터트리며 이근호 선수는 대구FC의 공격축구 선봉장에 섰습니다. 당시 대구FC는 최다득점 최다실점의 화끈한 축구로 인기가 높았지요. 그는 대구에서 뛰는 동안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등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대구사람들은 대구를 상징하는 '태양'을 모티브로 그를 '태양의 아들'로 불렀고, 이후 그 별명은 항상 그의 이름 앞에 따라 다녔습니다. 대구를 떠난 그는 13년만인 2021년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는 성실한 플레이와 선한 인성으로 축구계 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라운드를 떠나 엔젤로서 또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의 가입 소식에 엔젤들은 그를 '태양의 천사'로 부르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FC 소속 선수로 엔젤에 가입한 김귀현, 강현영에 이어 세 번째 엔젤이 됐습니다. 프로선수출신을 포함하면 조태근 엔젤을 포함 네 번째 이지요. 프로선수가 은퇴 후 자신의 소속팀을 위해 후원하고, 연고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시민이 구단의 주인'이라는 시민구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례이기도 하지요. 그는 선수 시절에도 엔젤회원들과 친분은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젤클럽의 순수한 시민정신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년이면 10년 엔젤이 탄생하는 만큼 이근호의 엔젤가입은 엔젤클럽에 있어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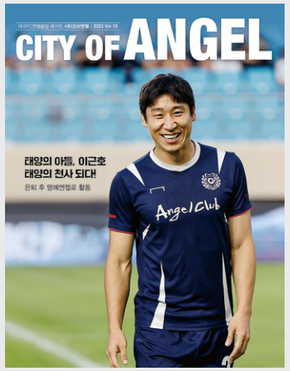
이근호선수는 앞으로 대구지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유소년 육성과 축구 콘텐츠와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태양의 아들' 이근호는 이제 자신이 뛰었던 팀을 후원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태양의 천사'로 날아오를 테지요. '엔젤'로서 그를 맞을 생각을 하니 한편으론 설레고, 또 감사합니다. 12월의 '태양'이 이토록 따듯하고 고마울 줄이야...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CITY OF ANGEL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

2023 Vol.10



'태양의 아들' 이근호 선수가 은퇴와 동시에 엔젤클럽에 가입, '태양의 천사'가 됐다. '태양의 아들'은 대구의 열정을 상징하는 '태양'에서 따온 것으로 대구시민과 축구팬들이 사랑하는 애칭이다. 엔젤클럽에서는 12월 3일 대팍에서 열린 이근호 선수 은퇴식에 엔젤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 작품은 이경옥 도예가가 제작한 것으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근호 선수의 애칭을 모티브로 했다. 엔젤클럽은 그동안 대구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것은 물론, 명예 엔젤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근호 선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태양의 천사로 대활약할 '이근호 엔젤'을 기대해 본다.

계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발행일 | **2023년 12월 11일**
발행기관 | **(주)엔젤클럽**
발행·편집인 | **이호경**
편집장 | **김용하**
편집위원 | **김종두, 손지훈, 조은비**
제작 | **멀티애드(대표 김정미)**
포토그래퍼 | **대구FC**
디자이너 | **김현진**
인쇄 | **(주)케이비팩토리(대표 이분숙)**

(주)엔젤클럽
420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대구)
전화 | **053-602-7307**
팩스 | **053-602-7306**
이메일 | **daeguangel@naver.com**



12

여기는 대팍! 오늘은 엔젤의 날!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를 맞아
엔젤과 대구시민, 축구팬이 대팍에서 하나가 됐다.

COLUMN ESSAY
4 기록하는 엔젤

Special
Angel Club Brand Day
10 대팍에서 축구천사가 되어 보세요!
12 축구천사 바로 당신입니다!
16 엔젤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엔젤스타가 떴다



20



24



32



40



88

ANGEL WITH US
20 **다이아몬드 엔젤케傳**
박효정 홈마트 시지점/옥산점 대표
– 축구 같은 인생, 다시 뛰는 공처럼!
24 **엔젤 초대석**
DGB대구은행 황병우 행장(명예 엔젤)
"대구FC 성장에 큰 보람"
28 **엔젤현장을 가다**
시니어 모델 김재우 엔젤
불꽃 튀는 산업현장에서 '인생의 런웨이'를 걷다!
엔젤동산
32 축구천사 엔젤의 이름, 대팍에 길이 남는다
36 김완준 엔젤클럽 상임 부회장
엔젤동산 기획에서 진행까지
38 엔젤동산 제막식 스케치
40 **엔젤클럽 제주원정대 이야기**
"어디라도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
엔젤 컬처
46 소프라노 이윤경의 못 말리는 축구사랑
50 책에서 만난 다양한 축구 이야기 – 이원재 엔젤
엔젤 브리핑
54 아듀 엔젤카! 컴온 뉴~엔젤카!
56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대구FC엔젤클럽 초청 유소년축구페스티벌 개최
58 축구는 이기고, 쓰레기는 줍고
대팍 가는길 쓰담 걷기
60 축생축사! 양종호 엔젤의 카타르 월드컵 원정기
62 **Angel & Life**
64 **엔젤프라자**
유소년 후원 엔젤클럽친선골프대회 이모저모
70 **5년 엔젤 스페셜**
100년 엔젤의 뿌리 5년 엔젤!
축구사랑, 대구사랑의 얼굴들입니다

DAEGU FC REPORT
78 **2023 대구FC 5대뉴스**
86 **엔젤 앤 플레이어**
'세진야' 박세진과 엔젤의 만남
92 **엔젤의 전사 대구FC 라인업**

ANGEL DIARY
102 **엔젤클럽 스폰서**
104 **다이아몬드 엔젤**
106 **2023 신입 엔젤 | 엔젤 명단 | 엔시오 명단**
119 **엔젤클럽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

Special

오늘은 엔젤의 날!

ANGEL CLUB BRAND DAY



10월 21일 파이널A 첫 경기, 대구FC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선수 실착 경품 추첨, 엔젤키즈 플레이어 에스코트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

대팍에서 축구천사가 되어 보세요!



'축구사랑 대구사랑'으로 시티즌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구FC엔젤클럽의 브랜드 데이가 청명한 가을날 성황리에 열렸다. 엔젤클럽은 지난 10월 21일(토)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에서 열린 하나은행원큐 K리그1 2023 34라운드 대구FC 홈경기(vs 전북현대)에 '대구FC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를 개최했다.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행사로 앞으로 엔젤들의 한마당 잔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은 2년 만에 파이널A그룹에 오른 대구FC의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인데다 예매 시작 10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려 엔젤, 엔시오(소액 후원자)는 물론 축구 팬, 그리고 대구시민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많은 축구팬과 시민들이 참여했던 주요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엔젤포토존 인증샷 선수 실착 경품 추첨 이벤트

대팍 중앙광장 엔젤 부스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우선 중앙광장에 설치된 엔젤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남긴 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엔젤클럽 계정(daegu_fc_angelclub)에 팔로우 한 뒤 이벤트에 참가했다. 이번 이벤트로 엔젤클럽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천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선수 실착 경품 추첨 이벤트'. 많은 축구팬들은 엔젤클럽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한 뒤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남겼고, 경품 추첨 응모권을 작성해 이벤트에 참여했다. 경품은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실착 축구화, 골키퍼 장갑, 프리매치 셔츠 등이다. 대팍의 왕 세징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 황재원, 홍철, 고재현, 김강산 선수가 친필 축구화를 기증했고, 대구 골문을 지키는 오승훈, 최영은 선수가 친필 사인 장갑을 흔쾌히 내놓았다. 그리고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는 대구FC 프리매치 셔츠 6장도 마련됐다. 프리매치 셔츠는 본 경기 시작전 선수들이 몸을 풀 때 착용하는 셔츠로 가슴에 엔젤클럽 로고가 들어 있다.
경품 추첨은 11월 1일 수요일 엔젤클럽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됐다. 추첨에는 엔젤클럽 회장단과 이날 브랜드 데이 봉사에 참여한 엔젤, 엔시오가 수고했다.

이외에도 이날 부스를 찾는 선착순 1004명에게 대구FC 선수 프리매치 셔츠 디자인의 엔젤클럽 키링도 증정했다.

엔젤 브랜드 데이 기념, 대팍을 푸르게!

지난해 브랜드 데이에서 엔젤 깃발 1만 장으로 대팍을 푸르게 휘날렸던 엔젤클럽은 이번에는 1만 개의 하늘색 풍선을 나눠줬다. 한 쪽에는 대구FC 엠블럼이, 다른 한 쪽에는 엔젤클럽 로고가 들어간 하늘색 풍선은 선수들이 입장하는 순간 대팍을 하늘색 꿈으로 가득 채우며 또 하나의 장관을 연출했다.

축구천사들의 시축, 엔젤키즈플레이어 에스코트

파이널 A라운드 첫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축에는 현수환 (주)동원약품 회장, 백서재 대영전자(주) 회장, 이기환 거한건설(주) 대표, 박효정 홈마트 시지점·옥산점 대표 등 다이아몬드 엔젤을 비롯해 엄마 뱃속에서 엔젤이 된 이주안군(2세)과 초등학생 엔젤 박은성군(율금초 5학년), 백무연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명예 엔젤 황병우 대구은행장,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이 참여해 엔젤의 시민정신을 알렸다. 이외에 엔젤 회원 자녀들이 참여하는 엔젤키즈플레이어 에스코트도 진행돼 대팍에 엔젤 천사들의 동심을 심기도 했다.

한편 새롭게 제작한 엔젤클럽 홍보리플렛 '축구천사, 바로 당신입니다'를 나눠주고 전광판을 통해 엔젤클럽 홍보 영상이 방영되는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이날은 대팍이 축구천국이 됐다.



1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를 맞아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축구팬들이 대팍에 몰려들고 있다.
2 대팍 중앙광장에 마련된 엔젤부스는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축구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3 다이아몬드 엔젤, 엔젤임원, 명예 엔젤, 어린이 엔젤들이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의 시작을 알리며 힘차게 시축하고 있다.

대팍에 울려퍼진 엔젤의 찬가
선수 입장과 함께 대팍은 하늘 빛으로

축구천사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가 대팍이다!
우리의 승리를 지켜주는 엔젤이 함께한다~”

2023년 10월 21일 DGB대구은행파크. 박정일 장내 아나운서의 힘찬 목소리가 대팍에 울려 퍼졌다. 엔젤 브랜드 데이임을 천하에 알리는 일성이다. 재능기부 엔젤로 엔젤동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박정일 아나운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순간, 대구FC와 전북현대 선수들이 대팍의 그라운드로 입장했고 엔젤회원들의 천사같은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왔다. 장엄한 팡파르와 함께 관중들의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도 어김 없이 관중석을 가득 메운 엔젤과 축구팬들은 미리 받은 하늘빛 엔젤풍선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 늘 관중석에서 보던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천사들의 표정엔 기분 좋은 들뜸이 완연했다. 대팍 가득 팡파르가 울리자 관중석에는 엔젤이 나눠준 하늘색 풍선이 장관이었다. 가을 하늘은 높았고 푸르렀으며 시축을 위해 하프라인에 선 엔젤들은 경기를 앞둔 선수들 만큼이나 상기됐다. 이번 시축에는 다이아몬드 엔젤은 물론 엄마 뱃속에서 엔젤이 된 태아엔젤 이주안 군과 초등학생 1호 박은성 군이 포함돼 있었다. 박은성 군은 “시축을 하게 돼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라며 “시축을 한 뒤에는 세리머니를 하고 싶었어요.”라고 즐거워했다.

주안이의 시축 소식을 들은 이원재 엔젤은 대구FC와 관련해 3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얘기했다. 먼저 대팍 개장하는 날 프로포즈를 한 것이고, 둘째는 대팍 근처로 이사오는 것, 그리고 다음이 대팍에서 주안이와 함께 시축을 하는 것이었다. “대팍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이사 온 이후 사업도 잘 풀리고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와중에 주안이의 시축이 결정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뜬 마음에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원재 엔젤은 “이번 시축으로 대구FC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겐 평생을 가져갈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가정의 출발지인 대팍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시축을 한 백서재 다이아몬드 엔젤은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가 지난해에 이어 성대하게 열렸다.”며 “좋은 잔치인 만큼 대구FC가 좋은 기운을 받아 앞으로 더 성장하고 엔젤 여러분도 하시는 일, 잘 됐으면 한다.”고 대구FC와 엔젤의 행복을 희망했다.

아이가 엔젤키즈 에스코트에 참여한 최주열 엔젤은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선수들과 손을 잡고 그라운드의 잔디를 잡아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더 의미있는 브랜드 데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WE ARE ANGEL!” 엔젤키즈 플레이어 에스코트에 참여한 엔젤의 천사같은 아이들이 대구FC 선수들과 함께 추억을 남기고 있다.

대팍광장 엔젤포토존
다양한 이벤트로 북새통

경기장 밖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열려, 많은 시민과 축구팬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많은 축구팬들이 엔젤클럽 인스타그램을 팔로워했고, 엔젤 포토존에서 찍은 인증샷을 올렸다. 그리고 대구FC 선수의 프리매치셔츠 모양을 디자인한 키링을 받고 즐거워 했으며 대구FC 선수 실착 경품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날 이벤트에 참석한 오은석과 이서준 어린이는 “대구FC 홈경기를 보러 자주 왔는데 이번에 엔젤클럽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참여했다.”며 각각 황재원, 고재현 선수가 신었던 축구화를 받고 싶다고 했다.

SNS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한 서유찬 군은 “엔젤클럽에 대해 들어봤다. 대구FC를 후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엔젤클럽이 더 많이 발전됐으면 한다. 엔젤클럽 화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마친 이경지 씨는 좀더 구체적으로 엔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매년 후원금을 내서 대구FC가 명문구단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받고 싶은 경품은 프리매치 셔츠다.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희소성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또한 좋아하는 선수는 박세진 선수며 중원에서 전방으로 찔러 주는 좋은 패스를 하고 아직 젊은 선수인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했다. 특히 본인과 동갑이라 더 응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1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이벤트에 참여해 하늘빛 엔젤풍선을 받고 있는 어린이.
2 엄마와 아이가 함께 엔젤클럽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고 있다.
3 대구FC 선수 실착 경품! 꼭 받고야 말거야~
4 엔젤의 자녀들이 엔젤클럽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축구사랑 대구사랑 정신’을 알렸다.
5 승리의 염원을 담은 하늘빛 엔젤풍선.
6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의 히어로! 영스카이본부 엔젤과 가족, 그리고 엔시오.
7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를 맞아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엔젤 리플릿 나눠 주는 등
엔젤 홍보 효과도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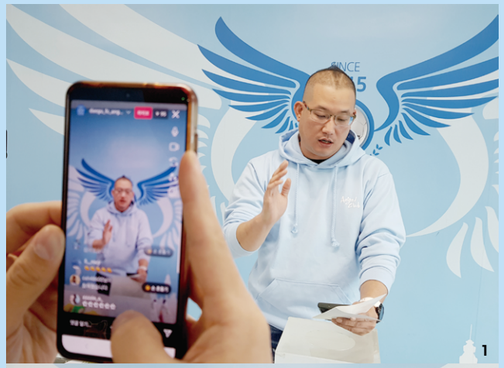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엔젤클럽 홍보다. 엔젤클럽에서는 행사에 앞서 ‘축구천사, 바로 당신입니다’ 리플릿을 제작해 이날 입장하는 관중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엔젤의 가족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최주열 엔젤의 아들 최시윤 군은 “아빠가 엔젤이어서 자랑스러웠다.”며 “오늘 직접 엔젤클럽 홍보를 나서보니 보람있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받는 분들도 반겨주셔서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장 안팎에서 알차게 진행된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는 흥행에도 성공했고, 엔젤 홍보라는 또 다른 목적도 달성했다. 엔젤 인스타그램의 경우 당초 팔로워가 1천 명선이었는데 당일 3천 명을 넘겼고, 신입 엔젤과 엔시오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영스카이본부 조승우 상임부회장은 “행사 2~3주 전부터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브랜드 데이를 준비했다.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보람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엔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엔젤스타가 떴다

엔젤 브랜드 데이 경품 추첨 방송, 손현구 엔젤 진행
과거 인기 유튜버 경험 살려 실력 발휘


1


2



3

1 엔젤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실력 발휘를 톡톡히 하는 손현구 엔젤.
2 라방 종료 후 참여자들이 엔젤클럽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3 경품으로 나온 대구FC 선수들의 실착 축구화와 골키퍼 장갑, 프리매치 셔츠.

2023년 엔젤 브랜드 데이에서는 또 하나의 시도가 있었다. 바로 엔젤 포토존 이벤트의 하나로 진행됐던 '대구FC 선수 실착 경품'의 추첨 방식이다. 추첨은 브랜드 데이 당일이 아니라, 지난 11월 1일 낮 12시 대팍의 엔젤룸에서 엔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이뤄졌다. 엔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영스카이본부의 젊은 엔젤들이 주축이 돼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만큼 기획에서나 진행 방식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실제로 이날 추첨 행사에 참석한 엔젤들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추첨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새삼 요즘 트렌드를 몸소 경험하는 분위기였다. 더 놀란 것은 라이브 방송의 진행자였다. 평소에도 각종 행사와 봉사에 몸을 사리지 않은 영스카이본부 운영이사 손현구 엔젤! 과거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회사 유튜브 진행자로 활동했던 손현구 엔젤은 이날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다. 방송 전날 회사 일로 밤을 새운 그는 비몽사몽으로 리허설도 못했지만, 막상 방송에 들어가자,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이어갔다.

손현구 엔젤은 2020년경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직접 진행까지 했다. 자동차와 관련해 신차 리뷰와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영상을 올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구독자만 하더라도 13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새로운 일 때문에 경기도 용인으로 옮겨 가면서 유튜버로서의 활동도 그만뒀다.

"유튜브를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되니, 부끄럽고 어색했어요. 더구나 어제 밤에 일하느라 밤을 새다 보니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코맹맹이 소리까지 났어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염려와는 달리 방송은 성공적이었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홈쇼핑 진행자처럼 생동감 있게 진행했다. 마치 완판 방송 같았다. 이번 방송을 통해 손현구 엔젤의 또다른 면모를 확인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직접 경품 추첨을 했던 백무연 엔젤클럽 상임부회장도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엔젤클럽에서 시도하는 또 다른 도전이라는 점에서 보기 좋았다."고 거들었다.


1


2



3

1 딸 예림이 돌잔치 후 첫 가족 사진을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함께 찍었다. **2** 손현구 엔젤은 경기도 용인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잘나가던 유튜버 활동도 중단했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의 자동차 광택 교육 현장. **3** 베트남 업체 초청으로 K-폴리싱(자동차 광택) 교육을 한 후 현지 교육생들과 함께. (사진 제공 : 손현구 엔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엔젤 이벤트,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희망

손현구 엔젤(룩카케어 대구 지역 본부장)의 주업은 자동차 광택, 코팅, 유리막, 자동차 렌트카 등 자동차 관련 분야와 아파트 욕실 코팅 홈케어 등 다양하다. 그만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엔젤클럽의 행사는 적극 참여한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엔젤룸과 사무국 등을 두루 소독했고, '엔젤의 발'인 엔젤카가 더러우면 손수 세차까지 했다. 그러다 보니 늘 잠이 부족했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피곤에 찌들려 과연 방송 진행이 가능할지 걱정의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은 가족과 대구FC를 사랑하는 엔젤의 마음이었다.

조승우 영스카이본부 상임부회장의 추천으로 엔젤이 됐지만 사실 손현구 엔젤은 당시만 하더라도 축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축구라고 하면 2002년 월드컵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엔젤 가입할 때만해도 조현우, 세징야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예림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중 우연찮게 엔젤을 소개받았고,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 대팍에서의 각종 봉사활동도 항상 딸 예림이와 함께 하는 손현구 엔젤은 "이번 브랜드 데이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다."며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벤트를 통해 가족이 화합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다."고 활짝 웃어 보였다.

한편으로 경품 추첨을 진행하면서 팬들의 반응이 남다르자 손현구 엔젤은 경품을 제공한 선수들에게도 큰 감사의 표시를 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팬분들이 참 좋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구FC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GEL WITH US

Are you Ready?

엔젤과 함께 이미 경기는 시작됐다

Photo by 대구FC

축구 같은 인생, 다시 튀는 공처럼!

갑작스럽게 시작한 마트 사업, 독서와 소통 리더십으로 해마다 성장
다이아몬드 엔젤 10년 약정, 동생도 가입 권유 첫 '남매 엔젤' 탄생



박효정 다이아몬드 엔젤
홈마트 시지점 / 옥산점 대표

"축구라는 스포츠는 인생과 같다." 파울루 벤투 前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패한 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카뮈는 이미 오래전에 축구에서 삶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했다. 어린 시절 알제리에서 골키퍼를 했던 그는 "어디에서 공이 날아올지 알 수가 없다."며 축구는 부조리하며 우리 인생도 그런 축구를 닮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리 가까이에도 축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여린 소녀 같은 외모지만 강단 있게 두 개의 마트를 알차게 경영하고 있는 박효정 다이아몬드아너스엔젤(이하 '엔젤')이 그렇다. 뜻하지 않은 일로 갑작스럽게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그녀의 축구 같은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본다.

엔젤 가입 후, 선수들 보는 눈 달라져
"우리 팀, 우리 선수들!"

마트가 바쁠 무렵인 평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시지에 위치한 홈마트 시지점을 찾았다. 박효정 엔젤을 만나기 위해서다. 아침 장을 보고 난 뒤 방금 들어와서인지 다소 부산했다. 경매 등을 통해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는 것이 마트의 경쟁력인 만큼 남달리 신경 쓰는 부분이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엔젤카가 반가운지 활짝 웃어 보인다. 지난 2월 엔젤 가입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박효정 엔젤은 당시 엔젤 사무국으로 직접 전화를 했다. 축구가 좋아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에 자주 가면서 엔젤을 알게 됐고, 엔젤클럽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연락을 했다. 엔젤클럽의 탄생배경부터 취지, 종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엔젤로 가입했다. 그것도 10년 약정까지 해가면서.

"축구가 좋았습니다. 이채민, 하율, 하준, 채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서도 좋았고, 바쁜 일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그만이었어요. 그러다 시민구단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시민이 주인인 구단! 그래서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쾌히 다이아몬드아너스엔젤에 가입한 그녀는 가입 후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한다. 선수들을 보는 눈도 더 애틋하고 따뜻해졌다. 예전엔 '열심히 뛰는 선수구나. 잘했네' 이런 생각이었지만 요즘에는 '우리 팀, 우리 선수'라는 느낌이어서 더 마음이 갔다는 것. 선수가 다치기라도 하면 가족이 다친 것처럼 속상해진다고 한다. 가입 후 달라진 또 다른 점은 대팍 홈경기 이후에 오는 지인들의 전화다. 전광판에 홈마트 엔젤 광고가 뜨면 지인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고 연락이 온다는 것. 막상 박효정 엔젤은 전광판 광고가 나오면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지만 그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고 한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효정 엔젤이 직원들과 활짝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박효 정엔젤은 내친 김에 동생인 박영훈 홈마트 신대점 대표도 추천했다. 두 살 터울이라 어렸을 때는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의지하는 사이다. 좋은 일인 만큼 함께 하자는 생각이 들어 권유했다. 더구나 박영훈 대표는 직원들과 풋살을 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니 천생 엔젤이었다. 그렇게 '남매 엔젤'이 탄생했다. 그렇다 보니 집은 물론 회사에서도 축구와 대구FC 이야기가 넘쳐난다. 직원들도 축구로 소통한다. 경기가 있는 다음날에는 서로 축구 이야기로 즐겁다. 한마디로 축구로 하나가 됐다.

최근 엔젤에 가입한 박영훈 대표는 "누나는 마트를 하게 되면서 평소에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좋은 일을 찾아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며 "축구를 통해 대구를 사랑하는 엔젤클럽 역시 축구는 물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아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축구로 하나되고 엔젤로 더 돈독해진 박효정-영훈 남매 엔젤은 축구사랑 만큼이나 사업에도 최선을 다한다. 잘 나가는 축구팀처럼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 팀(One Team)을 이루어 좀 더 좋은 물건을 확보하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덕분인지 사업 초기보다 마트는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박효정 엔젤은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가진 특별한 그 무엇이며, 엔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것 같다."며 "나 역시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 시민구단 대구FC가 명문구단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대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박효정 엔젤에게는 행복이었다.

갑작스럽게 닥친 운명, 다양한 독서와 소통으로 이겨내

엔젤클럽 매거진의 '다이아몬드 엔젤 열전'을 취재하면서 조심스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박효정 엔젤은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평정심을 찾고는 "지난 2018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에게 닥친 뜻밖의 상황이었다. 어디서 날아온 지 알 수 없는 공. 하지만 박효정 엔젤은 온 몸으로 그 공을 받아 냈다. 그녀가 축구를 사랑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박효정 엔젤은 남편이 운영하던 마트를 대신 맡아야 하니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무섭고 겁이 났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았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때 집어 든 것이 책이었다. 대화하는 법에서부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책, 자기계발서 등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때 읽었던 《미라클 모닝》(할 엘로드 지음, 김현수 옮김, 한빛비즈 펴냄, 2016)은 지금도 수시로 읽어본다. 책 속에 나온 수많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기적의 아침'을 맞이한 것이다. 책이 큰 힘이 됐던 것은 단순한 읽기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효정 엔젤은 읽은 대로 바로 현실에 적용했다. "책으로 사회생활을 배운 것 같았어요. 많은 것을 얻었지요. 무엇보다도 저는 절실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제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읽은 내용을 바로 바로 실천했습니다."

아들 하율이, 축구를 통해 몸도 마음도 행복하기를 바라

박효정 엔젤의 아들 하율이도 축구를 한다. 취미가 아니라 선수다. "어릴 때 내성적이어서 운동을 하면 좀 나을까 해서 축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가 행복하다면 좋았어요. 축구로 행복해진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요."

하율이는 축구를 하면서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건강하게 자랐다. 하지만 6학년이 된 요즘에는 진학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좋으려고 시작한 운동이었으니, 그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인데 말이다. 이런 염려에도 하율이는 여전히 축구가 1번이다. 그런 아이가 대견하지만, 앞으로도 축구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 박효정 엔젤은 자신이 힘들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된 것처럼, 하율이에게도 책 읽기를 권장한다. 하율이는 요즘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 있다.

"하율이와 함께 대팍에 갈 때면 피치 위에서 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라고 해요. 책에 나오는 공식 '생생하게 꿈꾸면 이뤄진다' (Realization=Vivid Dream)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율이가 그라운드를 뛰는 모습을 그려 보고 하율이도 자신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상상하지요.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하답니다."

'명문시민구단 대구FC'라는 박효정 엔젤의 꿈과 대팍의 그라운드를 누비는 하율이의 꿈이 이뤄지기를 생생하게 상상해 본다. 아무렴 생생하게 상상하면, '꿈은 이뤄진다!'


축구 안에서 행복한 박효정 엔젤과 하율이



대팍 경기 중 전광판에 뜬 홈마트 광고

대구FC 성장에 큰 보람

지역 상공인 힘으로 출범한 대구은행,
대구FC · 엔젤클럽과 같은 DNA
메인스폰서로 구단 발전에 힘 보탤 것



DGB대구은행 황병우 행장
(명예 엔젤)

행장님 반갑습니다. 환한 웃음이 너무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은행장 황병우입니다. 대구은행은 엔젤 회원님들과 대구FC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FC의 메인스폰서로서 대구FC의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십니까?

시민구단은 축구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역 선수뿐만 아니라 유소년 선수를 육성하고 축구 관련 생태계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FC는 시민구단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대구FC의 메인스폰서로서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구단으로 대구FC가 성장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대구은행의 성장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대구FC가 대구 시민들의 힘으로 창단하였듯이, 대구은행도 과거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을 이루어 지역의 힘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대구은행이 전국으로 뻗어 나간다면, 대구FC도 함께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엔젤클럽은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 모임으로 대구정신을 잇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DNA', 또 '대구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을 때,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추진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구은행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주식을 사주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내 온 경험이 있는 만큼 대구의 DNA라는 말에 새삼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은 위기에 강한 특성이 있고, 한 번 뭉치면 남다른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점이 대구의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대구하면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팍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팍에서 많은 팬들이 '쿵쿵짝'을 발맞출 때 큰 감동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대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명소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팍 덕분에 축구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홈경기를 할 때, 어웨이 관중들에게도 이름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으므로 많은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구은행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우 행장이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를 맞아 이호경엔젤클럽 회장, 다이아몬드 엔젤 등 엔젤과 함께 시축을 한 뒤 활짝 웃고 있다. Photo by 대구FC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은
엔젤 회원님들과 대구FC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팍이 이처럼 흥행에 성공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경기를 관전할 때의 현장감이 아니겠습니까? 타 경기장에 비해서 선수와 관중의 접점이 가까워서 바로 앞에서 경기를 응원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EPL이 부럽지 않을 훌륭한 응원 문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쿵쿵짝, 쿵쿵골'로 보내는 강한 에너지는 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응원 문화 덕분에 선수들이 힘을 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 더욱 좋은 응원을 하게 되는 호순환이 흥행의 성공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장님께서는 경제 경영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기까지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끈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직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장으로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높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은 그만큼 조직에서 인정해주고 기회를 제공하도록 경영방침을 정하고 조직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연소 행장님이십니다. 앞으로 고객, 지역 시민, 그리고 임직원과 어떤 소통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취임식을 생략하고 절감된 비용을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 열린 대구은행 창립기념행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신 절감한 비용으로 은행의 각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허례허식의 보여주기식 소통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직원들과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랫동안 대구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ESG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와 관련하여 ESG경영을 접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ESG경영은 환경(E)과 사회(S), 선진화된 조직 구조(G)를 고려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S)적 요소는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분야를 통해 사회적 관점의 활동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10월 8일 대팍에서 대구은행의 브랜드 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은행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에스코트





키즈 이벤트, 대구은행 직원 시축, 축구팬들을 위한 전광판 게임과 홍보 부스 운영, 선수 친필 싸인 이벤트 등 은행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고객들이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은행과 대구FC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ESG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이야말로 시민과 지역 기업들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엔젤뱅크'라 불릴 수 있는 은행은 어떤 은행일까요?

'호순환'이라는 단어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은행 최초로 경영 컨설팅 조직을 대구은행에 설립하였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고객이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당연히 대구은행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컨설팅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역민에게 힘이 되고 사랑받는 '엔젤뱅크'는 이런 호순환을 만드는 은행이 아닐까요? '고객이 잘되어야 은행도 잘된다.'는 컨셉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엔젤뱅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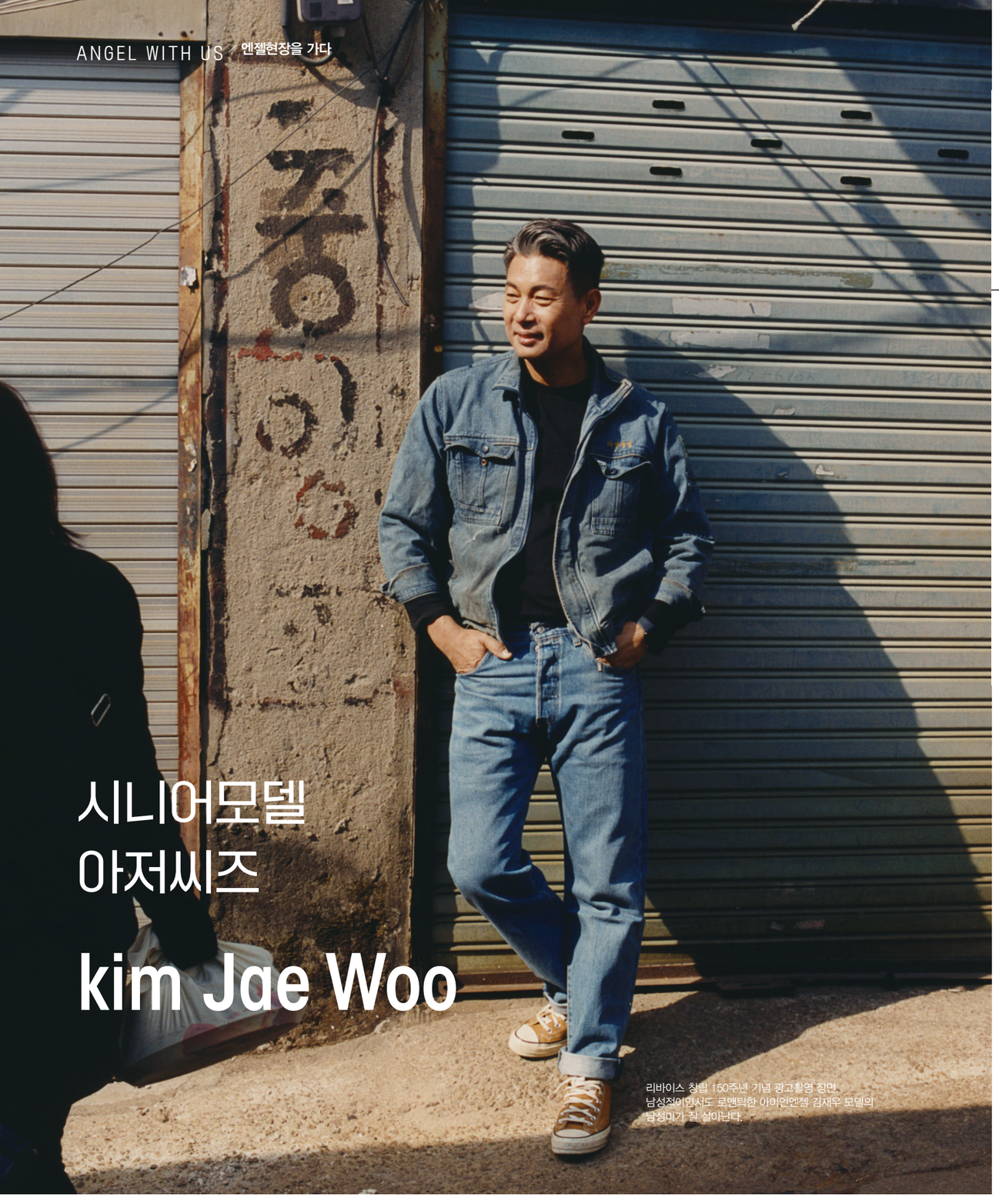
앞으로 대구은행과 엔젤클럽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엔젤클럽에 많은 지역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은행으로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엔젤클럽에 포함된 지역 기업인들이 역외 진출 시,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행장님께서는 지난 4월 명예 엔젤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을 실천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대구FC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명문 구단이 되는데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메인스폰서 역할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다양한 지역 내 축구 행사에도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이 올해로 56주년이고, 대구FC가 21주년이 됩니다. 향후 대구은행이 100주년, 대구FC가 65주년이 되는 해에도 여전히 메인스폰서가 대구은행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인터뷰는 2023년 10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시니어모델
아저씨즈

kim Jae Woo

리바이스 창립 150주년 기념 광고촬영 장면.
남성적이면서도 로맨틱한 아이언엔젤 김재우 모델의
남성미가 잘 살아난다.

불꽃 튀는 산업현장에서 '인생의 런웨이'를 걷다!

용접공 출신 **김재우** 엔젤,
시니어모델로 제2의 인생 '활짝'



대구 3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양정밀. 주조설비, 환경플랜트, 산업기계 등의 설계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의 최전선이다. 불꽃이 튀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가득한 이 공간이 순식간에 런웨이로 바뀐다면 어떨까? 용접공 출신으로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이 된 김재우 엔젤은 요즘 '생활 속 런웨이'라는 색깔있는 콘셉트로 새로운 모델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평소에도 김재우 엔젤은 직접 방진마스크를 끼고, 용접용 고글을 쓴 채 능숙하게 용접기를 다룬다. 쇠를 잘라, 다시 관 모양으로 능숙하게 이어 붙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프로 용접공이다. 하지만, 두꺼운 용접장갑과 마스크를 벗고 나면 그는 또 다른 사람이 된다. 자연스럽게 공장 바닥을 런웨이 삼아 워킹 하는 모습에서 생활 속에 살아있는 모델의 색다른 모습이 떠올랐다. 땀 범벅이 된 얼굴 위로 검고 흰, 그래서 적절히 조화를 이룬 머릿결이 독특한 멋을 만들어 낸다. 상의 작업복과 하의 검은 데님도 그 분위기에 한몫한다. 하지만, 단순히 '폼 미칠려고'만 하는 게 아니다. 올바른 자세와 정확한 워킹은 몸과 마음 건강에도 좋다는 게 김재우 엔젤의 지론이다. '생활 속의 런웨이'라는 그의 패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그에게는 우리 삶, 나아가 인생이 모두 런웨이다. 마음 다잡고 당당하게 제대로 걸으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렇게 그는 주중에는 용접공 출신 사장으로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살고, 주말에는 '아저씨즈'(시니어 모델 인플루언서 그룹)의 시니어모델로 또 다른 삶을 산다. 이런 그의 노력이 통해서일까. 그는 광고와 방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인스타 팔로워가 9만 명을 바라보는,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됐다.



산업현장에서 작업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
이 사진 한장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



시니어 패션쇼를 야저삼즈로
바쁜 날들을 보내는 김재우 엔젤.

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치열한 삶 살아온
산업 역군

그는 솔직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바닥부터 걸어온 그의 인생은 런웨이에서 깊은 매력을 발산하기에 충분히 깊었다. "16년 전에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월화수목금금금…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죽어라고 일만 했어요. 자립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 노력으로 자리가 잡히니, 가끔 허전할 때도 있었어요. 뭘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싶었죠. 그 때 저에게 걸어온 것이 패션모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방송반을 하면서 끼를 발산했던 김재우 엔젤은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끼를 잊고 살았다. 평소 그의 우직함 대로 한 곳만 보고 달렸다. 졸업 후 대구에 위치한 용접제관업체에 근무하다가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 업체에서 10년간 근무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2003년경 대구로 내려와 근무하다가 제관용접 공장을 인수, 자리를 잡느라 사는 것에 바빴다. 옷도 닥치는 대로 입고, 그저 산업현장에서 불꽃처럼 최선을 다했다. 패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그에게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우연찮은 기회였다. 대구FC엔젤클럽의 일원으로 2019년 10월 대구패션문화페스티벌에 참가, 자신 속에 감춰진 끼를 발견한 것이다. "그 때만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옷 좀 잘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전문모델보다는 일상생활에 즐겁게 적용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올인'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그였다. 모델 분야도 마찬가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부끄럽지만, 저의 한계가 어딘지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 사업시작 할 때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일만 하고 살아왔던 터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패션 모델 통해 자아 재발견,
인생의 깊이 녹아든
'생활 속 런웨이' 강조

처음에는 여러 번의 오디션에 도전했고, 연속해서 떨어지기도 했다. 산업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럴수록 그는 더 단단해졌다. 중간 중간 스스로 체크했고, 지인들에게 스스럼 없이 조언을 구했다. 고치고 고치고, 걷고 또 걸었다. 공장에서도 쉴 때면 공장 바닥을 런웨이라 생각하고 워킹을 했다. 마침내, '더 룩 오브 더 이어 클래식 코리아(The Look of The Year Classic KOREA)'의 시니어모델 콘테스트의 본선에 올라 '라인상'을 받으며 본격적인 시니어 모델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LF패션, 커버낫, 스파오 등 화보촬영을 하였으며 시니어 광고모델 입문 프로그램 Class energy(클래스에너지)를 수료하고 나서 엡손 프린터, 반포 래미안, 하이웍스, 최근에는 MILLET, 센트룸, 삼성비스포크, K2, 리바이스 청바지, 포멘트 향수 등의 브랜드 광고에 출연하는 등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다양한 시니어 모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김재우 엔젤은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본업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제조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생활 속 런웨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공익적인 차원의 재능기부도 그의 목표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보그화지에 실린 삼성비스코프광고 모델로 활약

축구장 패션쇼 꿈꾸는
낭만천사!
새로운 패션문화 만들어 간다

사실 처음에는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시선도 받았다고 한다. 제조업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왜 '딴따라'냐고 했다는 것. 가족들도 말렸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럴수록 자신의 일에 더 충실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요즘은 칭찬의 소리도 많이 듣는다. 알아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산업현장에서 패션쇼를 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중소제조업이 많은 도시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산업현장의 문화를 반영한 패션쇼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와 태도, 그리고 자아의 발견이라는 패션모델의 덕목을 산업현장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 가족 역시 예전에는 말렸지만, 지금은 든든한 응원군이 됐다. 딸의 경우는 포토그래퍼, 코디네이터, 매니저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제조업 하는 사람이 무슨 패션모델을 하겠냐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모델을 공부하다 보니 좋은 게 많았습니다. 체형 관리도 되니 건강에도 좋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겸손해지고, 좋은 매너를 배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델 입문기를 떠올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삶의 런웨이인 것 같다."며 "요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대팍도 바로 또 하나의 런웨이인 만큼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 위에서 워킹하는 것이 또 하나의 꿈."이라며 엔젤로서의 소망도 밝혔다.

(사진 제공 : 김재우)



Photo by 대구FC

축구천사 엔젤의 이름 대팍에 길이 남는다

대팍 중앙광장에 엔젤동산 조성, 대구정신 담아

DGB대구은행파크 중앙광장 앞쪽에는 햇빛에 유난히 빛나는 기둥들이 앞뒤 간격을 두고 입체적으로 서 있다. 축구사랑을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하는 대구FC엔젤클럽의 기념물인 엔젤동산이다. 대팍의 뜨거운 햇살과 세찬 바람을 이겨내기 위하여 강화유리로 제작하였으며 앞으로 늘어날 엔젤들을 위하여 확장성을 강조한 구조다. 첫 번째 기둥에는 서예가 강봉준 글꼴연구소 붓소리 대표의 글씨로 '여기는 시민구단의 성지/대구FC, 엔젤의 날개를 달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강봉준 대표는 '대구라는 자부심' 등 그동안 대구FC의 각종 문구와 엔젤클럽 서체도 만들어 왔다. 나머지 5개 기둥에는 엔젤 회원 1천여 명의 이름이 담겨 있다. 대구FC를 명문시민구단으로 만들어 보자고 자발적으로 나선 뜻있는 시민들의 이름이다. 다이아몬드 엔젤은 물론 일반 엔젤들의 이름이 후원 횟수에 따라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중에는 2015년부터 후원을 시작한 엔젤들의 이름도 있다. 어느덧 9년 차! 바야흐로 내년에는 10년 엔젤이 탄생한다. 이들은 대구FC가 2부로 강등된 열악한 상황에서 팔을 걷어붙인 엔젤의 레전드!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엔젤클럽의 시작을 알리는 살아 있는 역사가 됐다. 기둥 뒷 부분에는 엔젤클럽 연혁과 함께 엔젤클럽에 쏟아진 찬사가 기록돼 있어 엔젤의 스토리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엔젤클럽의 6개 기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엔젤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엔젤의 기둥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시티 오브 엔젤(City of Angel), 엔젤도시의 빌드업이 시작된 것이다. 기둥 옆에는 천연석으로 만든 엔젤석(Angel Stone)이 뿌리박혀 있다. '축구시민주의'라고 새겨진 이 문구는 엔젤동산의 화룡점정(畵龍點睛)! 대팍에 시민정신의 방점을 찍었다. 엔젤클럽의 탄생 배경과 함께 '시민구단'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느덧 K리그 2023 시즌이 끝났다. 하지만 엔젤동산은 시즌이 끝난 후에도 묵묵히 대팍을 지키며 '여기는 시민구단의 성지!'라고 소리 없는 함성을 울리고 있다.

City of Angel,
엔젤의 도시 초석이 다져지다

엔젤동산은 대구FC엔젤클럽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엔젤클럽은 국채보상운동과 시민구단 대구FC를 창단한 주주정신을 계승한 또 하나의 대구사랑운동인만큼 벌써부터 엔젤정신을 기념하는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타 지역에서 엔젤클럽 벤치마킹을 위하여 대구를 방문할 경우에도 마땅히 보여줄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엔젤동산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회장단에서는 지난해부터 머리를 맞대고 엔젤동산 조성을 논의했고, 대구FC와 대구시의 도움으로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팍 광장(분수대 앞)에 '엔젤동산'을 건립키로 하고, 기획, 설계 디자인을 김완준 (주)JID대표가 맡았다. 재능기부로 엔젤동산 건립에 참여한 김 대표는 지난 2004년 대구스타디움 수변공원에 조성된 대구FC주주동산을 설계, 시공한 만큼, '시민정신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한층 의미가 있다. 김대표는 엔젤동산을 구상하면서 엔젤회원 증가에 따른 '확장성'과 함께 '축구를 통해 대구를 사랑하는 엔젤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주력했다. 현재 엔젤클럽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대표는 "엔젤동산의 기본 콘셉트는 확장성이다. 일반 기념물과 달리 엔젤동산은 점점 늘어날 엔젤의 이름을 담아야 하는 만큼 강화유리에 시트지를 추가로 붙일 수 있도록 중첩의 효과와 가변성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조형물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군집효과도 높아질 것."이라며 엔젤동산 조성을 계기로 엔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원했다.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 문구가 새겨진 엔젤석이 서 있는 엔젤동산 너머로 축구의 성지 대팍이 보인다.



엔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내 어디에도 시민들이 나서서 축구단을 후원하고 명문구단으로 만들어 가는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엔젤클럽은 재정적으로 대구FC를 후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바로 시민구단 대구FC의 정체성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민구단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의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대구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과거 국채보상운동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대구가 시민구단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역 상공인들과 대구시민들이 함께 시민구단인 대구FC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해서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대구FC 이사회 의장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대구FC가 이처럼 성장한 것이 매우 기쁘고 보람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구단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엔젤이 있어 말 그대로 '시민구단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FC는 2부리그에서 1부로 승격했고, FA컵에서 구단 사상 첫 우승을 했으며, 요즘에는 대팍이 매진될 정도로 대구가 축구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젤의 에너지가 큰 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엔젤의 이런 열정이 시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며, 대구시민 모두 축구로 행복해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대구FC, 엔젤의 날개를 달다!
엔젤동산 제막식

4월 21일 개최 엔젤, 엔시오, 대구시, 구단 관계자 등 참석

엔젤동산은 지난 4월 21일 제막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엔젤 및 엔시오는 물론 대구시와 대구FC 구단 관계자 등 각계각층에서 7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제막식에 앞서 엔젤클럽은 대구FC 메인 스폰서인 DGB대구은행의 황병우 행장, 지역을 대표하는 성악가 이윤경, 엔젤동산에 들어가는 각종 문구의 글씨를 쓴 서예가 강봉준 글꼴연구소 붓소리 대표에게 명예엔젤패를 전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공개된 엔젤동산은 앞으로 엔젤은 물론 많은 대구시민에게 시민정신을 일깨우는 좋은 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 대팍을 방문하는 타 지역민들에게도 대구정신을 홍보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은 "엔젤동산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신 엔젤클럽 임원과 회원,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대구시와 대구FC구단, 항상 응원해주는 대구FC 서포터스 그라지예 등 엔젤에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대구FC 초대 구단주인 김범일 전 대구시장은 "엔젤클럽은 대구FC가 명문자립구단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하는 국내 유일한 순수 시민모임이다.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라며 "재정적인 후원은 물론, 대구시민이 바로 시민구단 대구FC의 주인이라는 대구정신을 강조한 만큼, 국채보상운동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고 엔젤클럽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이아몬드 엔젤 1호로 참여하고 있는 이재하 회장도 "시민구단 대구FC가 한때 2부리그에 강등된 적도 있었지만, 엔젤과 대구시민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1부리그로 승격하고 FA컵 우승도 했다."며 "다른 도시에서 엔젤클럽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엔젤클럽은 성공적인 순수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엔젤동산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어 대구FC가 명문구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엔젤회원들이 4월 21일 오후 3시 DGB대구은행파크 광장에서 열린 엔젤동산 제막식에 참석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구FC 사랑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Photo by 하제연 엔젤

엔젤동산 조성 계기로 더 큰 발전 기대

엔젤동산 조성에 재능기부한

김완준 엔젤클럽 상임 부회장

2004년 대구FC주주동산에 이어
엔젤동산 조성에도 기여





엔젤동산 조성을 앞두고,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김완준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엔젤동산 기획에서부터 완공까지 노심초사했던 김완준 엔젤클럽 상임부회장((주)JID대표)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다.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에도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런 일이 끝나면 누구나 아쉽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엔젤클럽의 숙원사업인데다 앞으로도 엔젤을 상징하는 기념물인 만큼 부담도 컸을 것이다.

당초 엔젤동산을 구상하면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바로 매년 변하는 엔젤의 후원 횟수와 이탈하는 엔젤, 그리고 새롭게 늘어나는 엔젤을 모두 담아 내야 한다는 '가변성'이었다. 특히, 기존 엔젤의 경우는 추가되는 후원 횟수를 나타내야 하는 만큼 변화의 폭도 넓었다. 거기에다 DGB대구은행파크의 중앙광장이라는 야외에 조성되는 만큼 장소에 따른 변수도 있었다.

"엔젤동산은 여느 기념물과 달리 한 번 세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변하는 가변성과 확장성이라는 숙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재와 그에 따른 비용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죠. 특히 야외에 조성되는 만큼 뜨거운 햇빛과 강한 비바람에 노출되는 것도 감안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김 부회장은 본체의 소재를 강화유리로 하고 그 위에 시트를 붙이는 방법을 생각했다. "강화유리 한 장으로 세울 경우 유리 위에 투명시트를 중첩으로 붙이면 색이 진해지면서 깊이가 있고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 의한 훼손이나 환기 등을 고려해야 했죠. 그래서 사각기둥 형태로 만들었고 숨구멍도 내야 했습니다. 당초 구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엔젤동산의 크기와 형태도 김 부회장의 마음에 남았다. 당시 주변의 소나무 등 환경을 고려하여 다소 밋밋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형물 간의 간격에 더 큰 변화를 주었다면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설명. 하지만 이런 김 부회장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엔젤동산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으로 엔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사랑 받고 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지난 2004년 대구스타디움 수변공원에 조성된 대구FC주주동산 건립에도 참여한 만큼 시민정신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만큼 책임감도 컸다.

"대구FC주주동산에 이어 엔젤동산을 건립하면서 보람보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도인 김 부회장은 이를 '거룩한 부담'이라며 종교적으로 에둘러 표현했다. 그만큼 거룩하고 의미있는 작업이었다는 뜻이 아닐까.

엔젤동산 조성을 계기로 엔젤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김 부회장은 "엔젤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엔젤동산이 더 확장된다면 팬스 같은 모양이 아니라, 조형물의 간격에 더 변화를 줘서 입체적이면서도 풍성한 군집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엔젤동산이 지역의 명소가 되어 많은 엔젤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들도 이곳에서 엔젤정신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엔젤동산 제막식으로 엔젤클럽은 대팍의 역사가 됐다.
엔젤동산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을 스케치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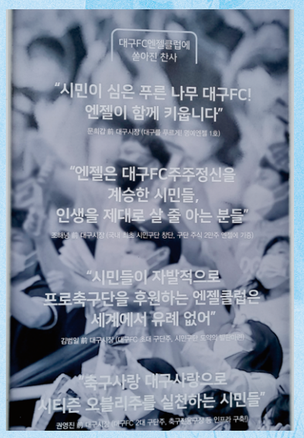


























1 나는 엔젤이다! 엔젤회원들이 저마다의 이름 앞에 사진을 촬영하며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2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이 제막을 앞두고 엔젤동산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3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엔젤동산.
4 시민구단의 주인인 시민구단 '축구시민주의'.
5, 6 엔젤동산 앞에 '좌우로!'.
7 엔젤클럽에 쏟아진 찬사.

8 내년이면 10년 엔젤(9년 엔젤)
9 엔젤석에 새겨진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
10 우리는 명예 엔젤!
11 꽃보다 엔젤.
12 너의 이름은?(엔젤들이 서로 이름을 찾아주고 있다)
13 이렇게 좋을 수가! 엔젤동산 제막의 기쁨.
14 시티즌 오블리주, 시민책무의 실천.

대팍의 밤을 지키는 수호천사! 엔젤동산

엔젤동산은 낮에는 찬란하고 밤에는 매혹적이다. 낮에는 대구를 상징하는 태양이 솟아올라 눈부시게 비추지만, 밤에는 은은한 어둠이 내려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강화유리로 된 엔젤동산 표면은 거울처럼 주변 밤풍경을 비춘다. 특히, 바닥에서 간접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Angel Club'이라는 영문 글자에서 불이 켜지면 엔젤동산은 마치 대팍의 밤을 지키는 수호천사 같다.

시민들도 가끔 길을 가다 발길을 모은다. 대팍을 지나다 아름답게 조명이 켜진 엔젤동산을 본 김경민씨는 "밤에는 대팍 인근이 허전할 줄 알았는데, 마침 엔젤동산이 대팍과 멋지게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것 같다."고 스마트폰으로 엔젤동산의 밤풍경을 담아갔다. 앞으로 엔젤동산이 더 확대된다면 대팍의 밤은 더욱 아름다울 것으로 기대된다.





2023. 7. 7. 제주원정 경기 후 대구FC 선수들과 원정팬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Photo by 대구FC

어디라도 그대들과 함께하리라

장성원 극장골, 제주에서 부른 대구 승리의 노래 7월 대구FC엔젤클럽 제주원정기

2023년 7월 어느덧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이날 대구국제공항에도 비소식이 예고됐다. 발빠른 엔젤회원들은 하루 전날 제주로 떠났다. 바쁜 일정으로 경기 당일 출발할 엔젤들은 오전 일찍 공항에 몰려 들었다. 마침 대구공항에는 대구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대구의 새로운 축구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한 쪽에서는 단체로 출발하는 엔젤FC 회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제 각각 일정에 맞춰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부슬부슬 비가 내렸지만, 엔젤들의 표정은 들떠 있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다 제주 원정을 가는 길이라 상기된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같은 비행기에, 또 누군가는 다른 비행기를 탔지만 이들의 목적지는 모두 하나였다. 대구의 전사들이 있는 곳. 문득 '어디라도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서포터스의 노래가 떠올랐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주 원정을 실감했다. 김기나 엔젤은 천사의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며 대팍의 모습을 찍었다. 그야말로 엔젤, 천사가 내려다 본 대팍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타디움, 경기장이 아니었다. 대구시민, 그리고 엔젤의 혼이 담긴 성지였다. 하늘에서 내다보니 더 애틋했다.

축구소랑 대구소랑 이우다!
600여 명의 대구 원정팬 뜨거운 응원 펼쳐


1


2


3


4

제주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저곳에서 대구 축구팬들의 모습이 보였다. 조병래 엔젤은 "3년 전에 제주에 원정을 왔었는데 다시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꼭 승리해서 이번 제주 원정도 멋진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기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한편으로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이 안개비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저기에 우리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고 생각하니 느낌이 남달랐다. 곳곳에서 원정팬들이 하늘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 제주에서 보니 더 반가웠다. 김상수, 박명규, 이종우 엔젤 등 달서 3인방과 현정규, 김상덕 엔젤은 월드컵 경기장 앞 광장에서 파이팅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식당에서 만난 대구팬들과 어느덧 친해져 있었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또 함께 승리를 기원했다. 시민들을 통합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시민구단의 존재 이유는 제주 원정에서 더 명확해졌다. 이상득 엔젤은 전 가족이 출동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도 제주로 집결, 온 가족 모임을 제주에서 갖게 된 것이다.

이상득 엔젤은 "엔젤이 된 후 식구들 모두 축구를 좋아하게 만들었다.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축구를 좋아하게 돼 함께 유니폼을 입고 제주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관광차 제주에 와도 그냥 저기가 월드컵경기장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엔젤이 된 후로는 '이곳이 축구의 성지고, 대구FC 선수들이 뛸 곳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어린왕자의 한 문장처럼 이제 축구는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됐다.
모처럼 제주에 나타난 김형동 엔젤도 감회가 남다른 표정이었다. 과거 대구시체육진흥과장 재직 시 전용경기장 건립 및 대구FC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그는 "어느새 가장 모범적인 시민구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구FC의 힘을 제주에서 느낄 수 있다."며 감회에 젖었다. 감개무량한 표정의 김형동 엔젤은 "제주까지 원정오는 우리 대구FC 팬과 엔젤 여러분께 정말 감동했다."며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대구FC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나둘 엔젤이 모이자 경기장으로 다같이 입장했다. 이날 엔젤 회원들의 입장권은 이호경 회장이 지원했다. 제주 원정이 처음인 김상덕 엔젤은 "월드컵경기장이어선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웅장하고 축구 보기에 아주 좋은 것 같다. 비록 날씨가 흐리지만 우리 선수들이 운동하기에는 좋을 것이다."며 "오늘은 승리하기에 딱 좋은 날씨, 승삼이 데리고 갈려고 항공권도 이미 예약해 놨다."고 유쾌하게 말했다.



3 5

올해 엔젤이 돼 제주를 찾은 우찬정 엔젤은 "안개가 짙어 뭔가 신비로운 느낌도 든다. 엔젤과 함께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 와 있으니 가슴벅차다."고 첫 제주 원정 소감을 밝혔다. 요즘 뜨는 손시와 김시의 모습도 보였다. 김시는 이호경 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원정석을 메운 대구 축구팬들과 엔젤들은 하나가 됐다. 서포터스의 리딩에 맞춰 마음 것 대구를 외쳤다. 수많은 팬들 앞에서 선수들의 각오도 남달랐다.
신재호 엔젤은 "오늘 우리 대구FC 팬들이 대단한 것 같다. 거의 6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우리 선수들도 원정 온 팬들에게 보답하려는 듯 전반부터 엄청나게 많이 뛴 것 같다."며 경기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하루 전에 정영준, 남경문, 최명환 엔젤과 함께 온 이태훈 엔젤은 "제주에서 우리 대구FC 유니폼을 입은 대구 분들을 만나니 마치 외국에서 한국사람 본 것처럼 반갑다. 어제 와서 관광도 하고 축구 응원할 겸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1 대구국제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엔젤FC 회원들이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2 오~ 우리의 축구성지! 하늘에서 본 대팍.
3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앞에선 김형동 엔젤.
4 엔젤원정대가 서귀포월드컵경기장으로 입장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5 극적인 승리 후 엔젤클럽 제주원정대가 '대구'를 외치고 있다.
6 대구FC 넘버원! 서동국 엔젤.



6

선제골 허용했지만, 세징야-장성원 골로 역전승

후반에 들어서면서 안개가 더 짙어졌지만, 응원단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한 골을 먼저 내줬지만 원정 응원석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바로 만회골을 기록했고, 후반 44분 장성원의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자 원정석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대구를 외쳤다. 남은 시간에도 대구선수들이 잘 버티어 주자 원정석에는 '이겼다. 이겼다' 소리가 터져나왔고 모두 다 제주의 아름다운 밤을 만끽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현정규 엔젤은 "제주 원정와서 너무 기쁘다. 잊을 수 없는 원정이 될 것 같다. 대구FC 파이팅! 엔젤클럽 파이팅!"이라고 기뻐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거센 비가 쏟아졌지만, 엔젤들은 승리의 기쁨에 파이팅을 외쳤으며, 서포터스들과 축구팬들은 빗속에 대구를 외치며 대구의 열정을 제주에서 꽃피웠다.

※ 정리 : 엔젤클럽 사무국







1 극적인 역전골이 터지자 대구팬들은 '이겼다! 이겼다!'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2 경기가 끝나자 거센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대구팬들은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승리를 기뻐했다.(손시와 김시)
3 600여 명의 대구팬들은 제주 원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대구FC 선수들을 두 팔 벌려 응원했다.

"너거 아버지 머하시노?"

제주 원정 뒷풀이, 엔젤의 밤은 뜨거웠다!

제주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자 엔젤의 뒷풀이도 뜨거웠다. 밤 10시30분을 넘긴 늦은 시간이었지만, 엔젤들은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감출수가 없었다. 인근 식당에서 30여 명이 모인 이날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다.

이기환 다이아몬드 엔젤은 "오늘 3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우천으로 비행기가 지연이 돼 경기를 못 보는 줄 알았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출발해 킥오프 직전에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그동안 원정을 많이 다녔는데 오늘처럼 멋진 경기는 처음이었다. 오늘 대구FC의 승리는 이러한 우리 엔젤과 시민, 서포터스의 열정 덕분."이라고 짜릿했던 하루 일정을 밝혔다.

아들과 함께 제주 원정을 온 서동국 엔젤은 "아들과 함께 원정 다닌 것이 이번이 세번째다. 광주가서 이기고, 울산 가서 아쉽게 졌지만 오늘 극장골로 승리해서 너무 기쁘다."며 "비록 날씨가 좋지 않지만 아들과 함께 온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엔젤이 최고다."고 외쳤다. 최명환 엔젤도 "축구 응원을 위해서 제주도 까지 왔는데, 직관한 경기에서 이겨서 너무 기쁘다. 최선을 다해 뛰어준선수들이 너무 고맙다. 대구FC 파이팅이다."고 덧붙였다.





이상득 엔젤 아들, '울 아버지 자랑스러운 엔젤입니데!'

가족이 제주에 집결한 이상득 엔젤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됐다. 뒷풀이에서 아들을 소개하자, 곳곳에서 '너거 아버지 머하시노'라며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을 패러디 했고,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 엔젤입니다'고 화답하자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비행기 지연으로 경기를 직관하지 못한 엔젤도 있었다. 김보성 엔젤은 "비행기 지연으로 직관하지 못했지만,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뒷풀이 장소로 찾아왔다. 경기를 못 본 것은 아쉽지만 여기서 엔젤 여러분을 만나니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앞으로 자주뵙겠다."고 아쉬움 섞인 행복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많은 회원들이 원정에 나선 엔젤FC 감독 천자우 자문위원은 "어떤 모임이 있으면 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다 함께 해서 얻은 승리여서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다함께!"라고 선창하자, 엔젤들이 "모두함께!"라고 후창했다.

이호경 회장은 "영화를 찍어도 이런 감동적인 영화는 없을 것 같다. 오늘 승리는 엔젤, 서포터스, 대구시민 등 원정 오신 모든 분들의 힘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좋은 팬을 가진 대구FC는 이미 명문구단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고 마무리 인사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엔젤FC 단장 안상영 엔젤이 "엔젤이여 영원하라!"건배사를 하며 아름답고 멋진 제주의 밤은 마무리 됐다.



글 /사진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소프라노 **이윤경**의 못 말리는 축구사랑



지난 4월 명예 엔젤 위촉,
클래식 공연마다 엔젤과 대구FC 이야기

섬세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소프라노! 중앙콩쿨 1위, 벨리니국제콩쿨 우승, 이탈리아 음악협회 특별상 등 각종 대회의 우수한 성적, 런던 왕립 페스티벌 홀,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극장, 이탈리아 벨리니오 오페라 극장 등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출연!

그동안 소프라노 이윤경에 따라붙는 각종 수사다. 최근에는 하나가 더 붙었다. 바로 '엔젤Angel'이다. 무대 위에서 음악으로 천사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만큼 '엔젤'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린다.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녀의 공연에 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클래식 음악에 실린
축구사랑 대구사랑의 이야기

지난 9월 14일 대구콘서트하우스의 클래식 토크쇼 '아티스트 NOW 소프라노 이윤경의 달콤한 인생!' '사랑'을 주제로 한 이날 공연에서 이윤경 소프라노는 음악을 향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사랑 이야기, 바로 축구와 대구사랑 이야기를 슬며시 꺼냈다.

"얼마 전에 대구FC의 최고참 선수 이근호 선수가 국제친선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한 걸 봤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클래식 공연 중에 흘러나온 축구 이야기에 일부에서는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의 공연을 자주 찾는 팬들은 '아! 또 시작이구나'하며 웃으며 박수까지 쳤다. 이번이 처음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좀 더 들어보면 단순한 축구팬을 넘은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시민의 힘으로 만든 시민구단 대구FC에 대한 애정이었다. 대구 출신으로 시민구단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한 시민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어서 "올해 초에 대구FC가 부진하다가 요즘에는 성적이 좋아져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며 "대구시민인 여러분이 좀 더 응원해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시민구단 대구FC를 후원하는 순수 시민모임인 엔젤클럽을 알리고, 자신이 명예 엔젤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이윤경 소프라노가 명예 엔젤이 된 것은 지난 4월이다. 당시 DGB대구은행파크 중앙광장에 건립된 엔젤동산 제막식에서 많은 엔젤과 시민이 모인 가운데 명예 엔젤 위촉패를 받았다. 이에 그녀는 이날 만찬장에서 즉석으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의 한 소절을 부르며 엔젤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이탈리아 유학시절 이름을 알리지 않은 대구 분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그 일을 잊을 수 없다."며 "명예 엔젤로서 시민구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니 감사한 일이다. 앞으로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후 이윤경 소프라노는 각종 클래식 공연에서 '남들이 말릴 만큼' 대구FC와 엔젤클럽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절정은 지난 6월의 독창회였다. 이 공연은 특별했다. 이윤경 소프라노가 매주 화요일 마다 4회에 걸쳐 독창회를 한 것. 그녀는 여기에서 80곡에 가까운 노래를 쏟아냈다. 모두가 힘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윤경 소프라노는 힘든 것보다는 내내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많은 공연을 해오면서 못다 부른 노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4회의 독창회에서는 부르고 싶은 노래, 들려주고 싶은 곡을 정해서 마음껏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곡들 외에 클래식에는 정말 좋은 곡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죠."

한영아트홀에서 열린 4번의 공연은 연일 사람들로 가득했고, 편하고 즐겁게 진행됐다. 인터미션(intermission)도 없었다.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누구나 조심스레 다녀오면 된다. 특히 이윤경 소프라노가 중간중간 마이크를 쥐고 알기 쉽게 곡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클래식은 딱딱하지 않고 편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래서 200석 규모의 공연장은 늘 가족이 가득한 집 같은 분위기였다. 여기에서도 빠지지 않은 것이 축구와 엔젤클럽 이야기. 대구FC가 국내 최초 시민구단이라는 사실과 이를 후원하는 엔젤클럽의 탄생 배경까지, 나아가 경기일정까지 홍보했다.

그녀는 "시민이 주인인 프로축구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라며 "대구라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1 이윤경 소프라노는 대구에서 태어난 대구사람이며, '대구시민'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긴다.
2 편한 분위기 속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으로 '클래식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윤경 소프라노.
3 이근호 선수의 찐팬인 이윤경 소프라노가 대팍의 이근호 선수 사진 앞에서 소녀팬처럼 활짝 웃고 있다.
4 자신을 응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근호 선수가 이윤경 소프라노의 공연 팸플릿에 친필사인을 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냈다.





이근호 선수 찐팬,
축구선수에 동질감 느껴

이윤경 소프라노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축구선수를 보면 제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축구밖에 몰랐을 거예요. 정말 무더운 여름에도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것을 보면 '축구가 뭐라고 저렇게 열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게 될 때 너무 행복하지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우리는 무대를 떠나야 할 때가 많아요. 선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더 진심으로 응원하게 돼요. 어쩌면 저에 대한 응원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그녀는 이근호 선수의 '찐팬'이다. 국가대표 공격수로 활약하고 프로축구에서도 최고의 선수로 뛰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최고참으로 대구FC에 돌아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근호 선수가 좋았다. 그래서 공연 중에도 심심찮게 이근호 선수를 이야기하고 선발로 출전하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한다. 하지만, 벤치에서 출전을 기다리는 이근호 선수도 응원한다. 최고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났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근호 선수도 감사함을 전했다. 직접 이윤경 소프라노의 공연 팸플릿에 사인을 해 전달했고, 기회가 되면 공연에도 가보겠다고 약속했다.

대구 출신인 이윤경 소프라노는 어느덧 중견 음악가가 됐고, 그 깊이 만큼 진짜 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봐 주신 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20대부터 노랠 불렀죠. 때로는 아주 좋은 컨디션이 아닐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아주 예쁘지 않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상태이던 간에 '저를 참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때 정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윤경 소프라노는 엔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구FC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2부로 강등됐을 때, 때로는 플레이가 좋지 않았을 때 그래서 관중석이 텅 비었을 때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진짜 팬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엔젤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윤경 소프라노는 10월 21일 열린 '대구FC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에 대팍에 서고 싶었으나 미리 약속된 공연이 있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했다. 언젠가 그녀는 관객으로부터 '해외에서 많은 공연을 했는데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공연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자 "운이 좋아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한 만큼 큰 욕심이 없다. 다만, 명예 엔젤로서 축구장에서 공연하는 것도 뜻깊을 것 같다."고 했다. 언젠가 대팍에서 소프라노 이윤경, 대구시민이자 엔젤인 이윤경의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는 2023년 10월 31일에 작성됐습니다.

책에서 만난

다양한
축구 이야기



이원재 엔젤
축구 관련 서적 기증, 축구 알면 사랑도 깊어질 것



이원재 엔젤은 최근 대팍 근처로 이사왔다. 가벼운 차림으로 아내 우순월 엔시오와 아들인 태아 엔젤 주안이와 함께 대구FC 홈경기를 찾았다.

"누구보다 대구FC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넘어 축구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축구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랑도 더 짙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뱃속에서 엔젤이 된 태아 엔젤 주안이의 아빠 이원재 엔젤이 DGB대구은행파크 내에 위치한 엔젤룸에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기증했다. 논어로 축구를 푼 책에서부터 축구의 문화와 미학을 다룬 축구인문학 서적, 현직 프로축구단 단장의 축구경영학을 다루거나 축구 관련 에이전트,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메이저리그사커(MLS) 관련 콘텐츠 등 축구에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시간이 좀 지난 책들이지만 축구와 관련된 좋은 책들입니다. 저 혼자 봐도 좋겠지만, 엔젤과 함께 읽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엔젤클럽도 좀 더 품위 있고 지적인 단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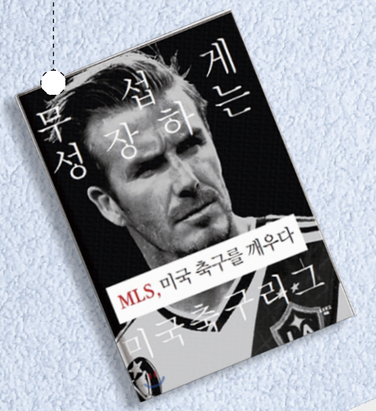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한다고 봤다. 또한 축구 역시 프로스포츠인 만큼 그와 관련된 분야, 예를 들어 마케팅, 에이전트, 구단 경영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축구를 좀 더 깊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축구 관련된 책을 구입해서 읽었다고 한다. 그렇게 책으로 이해하고 축구를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관전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원재 엔젤은 "대구FC의 경우도 지역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인 만큼 축구에 대한 서사와 함께 마케팅, 축구팬들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엔젤이 기증한 책 가운데 주요 책들을 정리해 봤다.

MLS, 미국 축구를 깨우다 : 무섭게 성장하는 미국 축구리그

태원찬 지음, 교보문고퍼플 펴냄

스포츠 천국인 미국. 하지만, 축구 만큼은 미식축구나 야구, 농구에 밀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MLS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K리그와 함께 이해하면 더 좋은 책이다.



끝나지 않는 축구 이야기

장원재 지음, 북마크 펴냄

스포츠평론가로 알려진 장원재의 축구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스포츠인 '축구'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축구의 역사와 유래부터, 월드컵 이야기, 한국축구의 명장면, 세계적인 축구선수와 감독 등 우리가 몰랐던 축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축구는 문화다

홍대선 지음, 책마루 펴냄

축구를 통해서 문화를 보고 문화를 통해서 축구를 본 책이다. 왜 축구는 훌리건을 달고 다니는지, 프랑스 축구는 왜 정치적인지, 이탈리아 축구는 왜 수비적인지 그리고 브라질 축구는 왜 그렇게 화려한지를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축구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축구철학의 역사 (위대한 전술과 인물들)

조나단 윌슨 지음, 리북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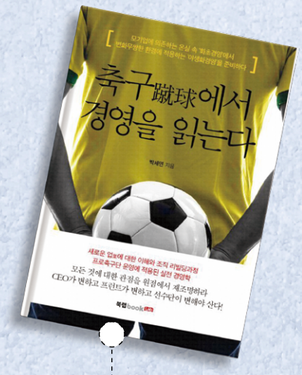
축구철학의 역사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축구전술의 변화와 흐름을 비롯하여 감독들의 철학이 어떻게 전술로 표현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세상 곳곳의 축구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역사의식을 나라와 시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펴보고 있다.



논어를 축구로 풀다

장원재 지음, 북앤피플 펴냄

축구의 원리를 《논어》의 가르침들로 설명한 책이다. 《논어》는 경전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옛적부터 마음을 닦는 일에서부터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인도해 왔다. 축구의 원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피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축구에서 경영을 읽는다

박세연 지음, 북랩 펴냄

이 책은 과거 2부 리그 탈락 위기에 놓였던 전남드래곤즈를 1년여 만에 중위권으로 도약시킨 프로축구단 단장의 실전 이야기다. 저자가 축구를 통해서 배운 경영의 원리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프로축구단 운영에 적용된 실전 경영학을 만나 볼 수 있는 책이다.

축구의 미학

프리츠 B. 지몬, 초록물고기 펴냄

사회를 분석하듯 축구에 대해 논하는 세계적 석학들을 만나게 해주는 책이다. 인문학과 사회학, 심리학과 경영학을 넘나드는 종횡무진 축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감독과 선수과 관중뿐 아니라, 골 세리머니 등에 대해 다룸으로써 우리의 축구 지능을 높여준다.





에이전트 비즈니스를 말한다

김동국 지음, 일리 펴냄

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들이 있다. 그들은 구단과 선수간 연봉 및 이적 관련 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저자는 '이영표 에이전트' '기자 출신 FIFA 에이전트 1호'로 축구계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13년의 현장 경험을 녹여 쓴 글을 책으로 묶었다.

아듀 엔젤카!

컴온 뉴~엔젤카!

엔젤의 마당발 1세대 엔젤카, 노후화로 은퇴
뉴엔젤카, 바통 이어 받아 새출발

Adieu Angelcar



8년을 엔젤을 찾아 다녔던 대구FC엔젤클럽의 발 엔젤카가 노후화로 아쉽게 엔젤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엔젤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종두 엔젤클럽 사무총장은 “그동안 수많은 엔젤들을 찾아나섰던 엔젤카가 노후화 돼 안전문제로 영광스럽게 은퇴하게 됐다.”며 “항상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막상 떠난다니 사람을 보내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엔젤카 1세는 지난 2018년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이 기증했다. 평범한 모습의 엔젤카는 곧 멋진 천사의 차로 탈바꿈 했다.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대표가 나섰다. 대구FC 선수단 차량을 래핑한 바 있는 윤대표는 엔젤카 소식을 듣고 흔쾌히 엔젤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했다. 대구FC엠블럼과 엔젤마크, 그리고 엔젤을 알리는 문구로 새롭게 태어난 엔젤카는 거리를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대구FC와 엔젤클럽 홍보에 한몫했다.
자신의 공장으로 찾아 온 엔젤카와 직접 사진을 찍었던 전진길 엔젤은 “멀리서 엔젤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가족이 오는 것처럼 반갑고 친근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그 덕분에 엔젤클럽도 많이 발전한 것 같다.”며 엔젤카를 추억했다. 엔젤들은 거리에서 엔젤카와 마주치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고, 전화로 연락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엔젤을 상징하는 모습에 방문할 때마다 엔젤들은 엔젤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한마디로 엔젤카는 엔젤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마스코트 역할을 했다.

New Angelcar

엔젤카에 이어 새로운 뉴엔젤카도 탄생했다. 이번에는 각종 짐을 싣는 공간까지 마련해 명실상부, 엔젤의 일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지훈 대리는 “차가 넓어지고 짐칸이 생긴만큼 엔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활약을 기대했다. 이번 뉴엔젤카의 래핑 역시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대표가 맡았다.
윤대표는 “축구사랑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한다는 엔젤의 취지와 엔젤회원들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래핑작업을 지원했다.”며 “이번에는 더 좋은 재질로 엔젤의 가치가 더욱 빛나도록 신경썼다.”고 말했다.
뉴엔젤카가 처음으로 찾아간 엔젤은 바로 박주현 엔젤이다. 마침 박주현 엔젤은 조대현, 송대호 엔젤을 추천해 신입 엔젤과 함께 엔젤카를 맞았다. 한 눈에 엔젤카를 알아본 박주현 엔젤은 “오늘 뉴엔젤카를 처음 만나게 됐다. 이번에도 고급 재질로 래핑을 기부받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빠진 것 같다.”며 “엔젤카를 보니 앞으로 엔젤클럽이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고 반가워했다.
송대호 엔젤과 조대현 엔젤도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뉴엔젤카의 첫 만남을 기억했다.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은 “엔젤클럽은 차량 하나에도 엔젤 정신이 담길 정도.”라며 “첫번째 엔젤카가 엔젤의 수많은 이야기를 싣고 달렸듯이 뉴엔젤카 역시 엔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대구FC엔젤클럽 초청 유소년축구페스티벌 개최
5개 팀 100여 명의 유소년 참가 즐거운 시간 보내

지역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구FC엔젤클럽 초청 유소년축구페스벌이 2023년 6월 24일 달성스포츠파크에서 열려, 모처럼 유소년과 가족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엔젤클럽의 홍보 확대를 겸해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는 리스펙트FC(윤재현 감독), FC레스피아(박동남 감독), 스노우파인FC(석민우 감독), 유니온축구클럽(강현영 감독), FC프렌즈(유병석감독) 등 5개 팀의 유소년들과 학부모, 엔젤회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한 유소년 선수들은 승패 보다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공을 차며 한데 어우러졌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공차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행복해 했다.

엔젤클럽에서는 이호경 회장, 정소영, 박기원, 조승우 상임부회장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엔젤FC(단장 안상영, 감독 천자우) 회원들도 아침 일찍부터 행사 준비를 하는 등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힘을 모았다. 이날 문경에서 새벽에 출발한 박찬원 엔젤(문경축구협회 이사)은 "행사 준비 생각에 어제 밤잠을 설치다 새벽에 깼다. 행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일찍 출발해서 대구에 도착해 세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안상영 엔젤FC 단장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운동을 시켰다. 선수를 염두해 둔 것은 아니었는데, 그 덕분인지 정말 잘 자랐다."며 "운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참여하신 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경 회장은 "귀한 시간 내어서 이번 대회에 참석해 준 유소년 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대회를 통해 지도자 분들도 항상 수고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이번 대회를 준비한 엔젤FC 안상영 단장, 천자우 감독, 또, 솔선수범한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 감독은 "우리 유소년선수들이 화창한 날씨 속에 부모님과 함께 한 행복한 순간이었다. 아이들도 부모님도 너무 좋아했다."며 "아이들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을 심어주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엔젤클럽에 감사드린다"고 전해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호경 회장을 비롯 안상영, 천자우, 정소영, 정호용, 최태원, 전용철, 배태관, 박기원, 조병래, 이승용, 김강수, 박명규, 이종우, 김상수, 김진성 엔젤 등 많은 분들과 대구FC 에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5


2


3


4

1 유소년선수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엔젤 관계자들이 활짝 웃으며 즐거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2 오늘은 신나는 우리들 세상.
3 나도 손흥민처럼.
4 축구는 팀플레이!
5 "우리 즐겁게 축구하자!" 페어플레이는 어릴 때부터.



1


2

축구는 이기고, 쓰레기는 줍고

대구FC엔젤클럽, '쓰담걷기' 캠페인 전개
환경의 날 앞두고 DGB대구은행파크
주변서 '대팍가는 길' 정비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축구는 이기고 쓰레기는 줍고!" 대구FC엔젤클럽이 지난 6월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DGB대구은행파크 주변에서 '대팍가는 길, 쓰담걷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대팍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엔젤회원과 축구팬, 시민 등 100여 명은 6월 4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대팍 주변 및 고성동 골목 일대를 돌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보호 현수막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로 축구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면서 경기장 인근 환경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3

특히, 미래 축구팬이 될 어린이들이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부모와 함께 많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이날 쓰담걷기 행사만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조혁준 엔젤은 "그동안 환경의 날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일상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자주 참여하지 못했는데 대구시민과 함께 의미있는 행사를 하게 돼 보람되고 기쁘다"고 말했다.

아들과 함께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태환 엔젤도 "축구도 보고 응원도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다. 마침 오늘 중요한 경기를 하는 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대구FC도 승리했으면 좋겠다."며 "축구는 이기고, 쓰레기는 줍고!"를 소리 높여 외쳤다.

지난해 말 엔시오에 가입한 김대원 씨는 "엔젤클럽 인스타그램 등 각종 홍보를 통해 행사를 알게 됐다. 우리가 사랑하는 경기장을 우리가 청소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며 "아울러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평소에도 경기장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했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구FC 축구팬인 박준형 씨는 "생긴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대팍이 축구성지로 자리잡았다. 우리 시민 스스로 대팍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꼭 이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찾는 시민, 축구팬 분들이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는 각자가 가져가 항상 깨끗한 대팍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주은 것은 담배꽁초였다. 아이들은 골목골목은 물론 주차된 차 밑까지 돌며 담배꽁초를 주었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봉지에 담배꽁초를 한가득 주은 한 어린이는 "정말 정말 담배꽁초가 많았어요. 제가 직접 참여해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도 하니 마음이 뿌듯해졌어요."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엔젤클럽 영스카이본부 조승우 상임 부회장은 "대구FC 홈경기장인 대팍은 최근 관중이 늘면서 축구의 성지가 되고 있다."며 "환경의 날을 앞두고 우리들의 경기장인 대팍 주변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등 축구도 보고 환경도 함께 챙기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1 '축구도 보고, 환경도 보호하고!' 많은 엔젤과 시민들이 대팍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대팍 가는 길 쓰담걷기'캠페인에 참여했다.
2 골목과 주차된 차 밑까지 쓰레기를 줍고 있는 참가자들.
3 아들과 캠페인에 참가한 신태환 엔젤이 '축구는 이기고, 쓰레기는 줍고'를 외치고 있다.

카타르에서 대한민국 축구
희망을 봤다

축생축사! 양종호 엔젤의 카타르 월드컵 원정기



1

"11월 24일 에듀케이션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4만 2천 명 함성 속에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축구 전쟁이 시작됐다. 세계공식 축구 응원 구호 '대한~민국 짜작짝 짝짝' 박수와 함께 사상 최초로 중동 카타르에서 시작됐다~~~"

축구에 죽고 축구에 사는 양종호 엔젤은 1년 전의 11월을 잊지 못했다. 큰 아들 비홍씨와 함께 떠났던 카타르 월드컵 원정은 부자지간에 평생을 두고 갈 추억이다. 그는 2017년 차남 지헌씨와 함께 엘클라시코(바르셀로나 vs 레알마드리드), 그리고 유럽챔피언스리그 8강(바르셀로나 vs 유벤투스) 경기를 직관했다. 그때 아버지와의 축구여행이 인생의 추억이 됐던 지헌 씨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형이랑 다녀오세요!"라고 하자 양종 호엔젤은 두 말 않고 "OK!" 바로 티켓팅을 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지헌이가 장교가 되기 전에 엘클라시코를 보고 싶다고 했고, 그 경기를 보고 나서는 '인생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 최고다!'고 했다. 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됐던 것 같다." 라며 "이번에는 큰 아들과 함께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해 카타르 원정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에게 아들의 존경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요, 인생을 살 이유다.

어느덧 1년 전의 이야기가 됐지만, 아직도 그는 축구장에만 오면 그때의 흥분과 감동이 떠오른다. 첫 경기인 우루과이와의 선전, 승리를 예상했던 가나전의 패배, 그리고 강호 포르투갈을 꺾으며 16강에 오른 기억은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감동의 추억이다.



2



3


4

1 카타르 현지에서 한국 축구팬들과 함께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양종호 엔젤.
2 이동휘 엔젤(오른쪽 두번째), 이정원 엔시오와 함께 월드컵을 기억 속에 남기고 있다.
3 축구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양종호 엔젤이 해외 축구팬과 함께 엔젤클럽 현수막을 들고 엔젤을 홍보하고 있다.
4 "아빠가 최고야!" 아들의 존경은 아버지에겐 최고의 선물이다.(양종호 엔젤과 두 아들, 왼쪽 비홍, 오른쪽 지헌 씨)

그만큼 축구는 국가, 종교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대단한 마력을 가진 스포츠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월드컵 원정이 처음이었던 양종호 엔젤은 이동휘 엔젤, 이정원 엔시오 그리고 많은 국내 축구팬들과 함께 했던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카타르에서 경험했던 이국적인 중동문화는 축구여행의 또다른 추억이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공 하나에 지구촌이 울고 웃으며 함께 감동하고 애정 하는 위대한 의식 같다고나 할까요? 대팍에서 그런 위대한 스포츠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는 벌써부터 2026년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 북중미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에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선수가 주축이 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 대회다.

"월드컵 직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라는 양종호 엔젤은 "2026년 월드컵에도 꼭 갈 생각이다. 지난 월드컵에서도 대구FC 홍철 선수가 있어 자랑스러웠는데, 이번에도 고재현, 황재원 선수 등 대구FC 선수가 꼭 뛰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 사진 제공 : 양종호 엔젤

ANGEL & LIFE

노희찬 대구FC 초대 대표이사 방문, 감사패 전달



대구FC엔젤클럽 회장단은 2023년 8월 25일, 대구FC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노희찬 삼일방직그룹회장을 방문,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구FC와 엔젤클럽 발전과 관련해 환담을 나눴다.
이 회장은 "노희찬 회장님은 17, 18대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지난 2002년 대구시민과 지역 상공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국내 최초 시민구단 대구FC가 출범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며 "무엇보다 대구FC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구단의 장기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엔젤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방문하게 됐다."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희찬 회장은 "국내 최초 시민구단인 대구FC 창립 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엔젤클럽이 결성돼 반갑고 기쁘다."며 "엔젤클럽은 정말 소중한 단체며, 시민을 하나로 만들고 대구FC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노회장은 또 "모두 다 본업을 가지면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시민구단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있어 감동받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대표 취임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주)뉴프라임 회장)이 2023년 11월 16일 오후 6시 호텔 수성에서 열린 '2023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에 신임대표로 추대돼, 취임식을 가졌다.
성 회장은 지난 2017년 아너소사이어티 대구 105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 모로코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성점화 회장은 11월15일에는 대한적십자 대구지사(회장 박명수)를 방문해 모로코 지진 피해 구호성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성회장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기쁨이며 행복이다. 나의 작은 용기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져 더 행복한 대구가 됐으면 한다."고 봉사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성 회장은 또다른 대구사랑운동인 엔젤클럽에서도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로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DAEGU FC ANGEL CLUB



이호경 엔젤회장 대구한국가스공사 농구단 홈개막전 참석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이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이하 '페가수스') 홈개막전에 초대됐다. 2023년 10월 28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홈 개막전에는 페가수스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다. 종목은 다르지만, 스포츠를 통해 지역 사랑 운동을 펼치는 엔젤클럽 회장의 초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호경 회장은 "페가수스 농구단과 대구FC, 엔젤클럽이 같은 스포츠 분야인 만큼 종목이 다르더라도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신태환, 김기나 엔젤 등 엔젤들의 모습도 보였다. 신태환 엔젤은 "여름에는 우리 팀 대구FC, 겨울에는 우리 지역 농구팀 페가수스 농구단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풋살연맹회장 최태원 엔젤, 여성풋살대회 성공리 개최

대구풋살연맹회장 최태원 엔젤은 지난 6월 대구광역시장배 여성풋살대회를 성공리에 개최 한데 이어 7월 대구에서 열린 ICG국제청소년 스포츠축제에도 일본 야메시 야메학원중학교 여자축구부를 직접 초청(사진), 스포츠를 통한 양 도시간 교류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일본팀 초청을 계기로 향후 대구와 야메시의 여중, 여고부의 교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대구 지역 여자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종합 스포츠대회인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는 '다함께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세계 27개국 62개 도시에서 해외 청소년 2500여 명과 우리나라 중 · 고교생 1000여 명이 참석해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통해 우정을 나눴다.



임익기 엔젤, 경북ICT체험페스타서 신규 게임 '스텔라 메딕' 런칭

임익기 엔젤((주)브라이튼 대표)가 10월28일 경산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3 경북ICT체험페스타'에 참석, 신규 게임을 런칭하고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번에 런칭한 게임은 모바일플랫폼의 '스텔라메딕 STELLA MEDiC'으로 플레이어의 인지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된 어드벤처, 퍼즐 장르다. 경북ICT체험페스타는 경북지역 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북테크노파크가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경북게임페스티벌'로 4회까지 열리다 올해 이름이 바뀌었다. 임익기 엔젤은 엔젤클럽 앱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 새롭게 개편한 바 있다.

시월의 마지막 날, 천사들의 행복한 라운딩

유소년 후원 엔젤클럽친선골프대회 성료
청명한 가을날 1백여 명 엔젤 참가 친선 도모

대구 지역 유소년 축구 꿈나무 선수 후원을 위한 대구FC엔젤클럽친선골프 대회가
2023년 10월 31일 경산 인터불고CC에서 열렸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엔젤 등 100여 명이 참석,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모처럼 골프장에서 만난 엔젤들은 대구FC의 파이널A 진출을 축하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등 친선을 도모했다. 이종우 엔젤은 "오늘 너무 멋진 가을날이다. 이런 좋은 날 골프장에서 많은 엔젤과 운동하는 것이 즐겁다. 물론, 하는 김에 1등 했으면 더 좋겠다."며 웃어 보였다. 이동경 엔젤 부회장도 "시월의 어느 좋은 날, 좋은 모임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라운딩을 하게 돼 행복하다"며 미소 지었다. 김재홍 다이아몬드 엔젤도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 특유의 '브라보!'를 외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엔젤들은 골프장에 마련된 엔젤클럽 포토존에서도 서로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가을날의 추억을 남겼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성점화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대회 전체를 조직적으로 진행했으며, 정영준, 김규정, 문경화, 박혜영, 현정규, 김재우, 전진길, 양종호, 김홍식, 조태근, 신태환 준비위원과 경기위원장 박주현 엔젤이 사전에 준비모임을 갖는 등 대회를 알차게 준비했다.

성점화 준비위원장은 "대구 최고의 명문 클럽인 엔젤 회원분과 함께 대회를 하게 돼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며 "오늘 이 자리가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축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날 준비위원들은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미리 나와 상품을 준비하고 동선을 체크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았다. 준비위원 전진길 엔젤은 "앞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계획한 대로 미리 와서 준비를 해보니 남다른 보람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좋은 대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혜영 엔젤도 "매년 행사를 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엔젤회원 모두 즐겁게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하루 행복하기를 바랐다.



















성점화 준비위원장 등
준비위원의 철저한 준비로 풍성한 대회

좋은 날씨 속에 치러진 대회라 성적도 좋았다. 경기위원장인 박주현 엔젤은 "엔젤클럽친선골프대회의 경기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이다.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이 났다. 싱글을 한 분이 23명이나 나왔다. 100타 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며 "날씨가 좋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대회 였다."고 전체 경기를 평했다.

대회결과 심페리오(골프 경기방식)에는 우승 이재하 다이아몬드 엔젤, 준우승 감병원 엔젤, 그리고 3위는 특별 참가한 박민석 엔시오가 차지했다. 최강전에는 남자 부문에 우승 김상수 엔젤상임이사, 준우승 강병규 엔젤 상임부회장, 여자 부문에는 우승 김규정 엔젤 운영이사, 준우승 박혜영 엔젤 운영이사가 각각 시상대에 올랐다. 가장 멀리 공을 보낸 롱게스트는 조대현 엔젤(남, 300미터), 이승임 엔젤(여, 210미터)이 영예를 안았다. 니어리스트는 안상영 엔젤 상임이사(남), 김순조(여) 엔젤이 기록했다. 이외에도 이번 대회는 대구FC와 많은 엔젤들이 협찬을 통해 즐거운 경품 추첨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했다. '일출 사진'으로 유명한 박익진 작가의 첫 공개 작품(감포 일출사진)은 박창희 엔젤이 받았다. 박인진 작가는 "태양은 모나지 않게 둥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루는 깨달음의 색이다. 인생은 배우는 것 보다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레드는 건강과 에너지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받으시는 분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은 "아름다운 가을날 평소 존경하는 엔젤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운동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며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 힘써 주신 성점화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과 박주현 경기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엔젤클럽은 지난 두 대회에 이어 이번대회에도 지역 유소년 후원금을 모아, 지역 유소년 꿈나무 선수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100년 엔젤의 뿌리 5년 엔젤!

5

100년 엔젤의 뿌리 5년 엔젤!
축구사랑, 대구사랑의 얼굴들입 니다.

엔젤클럽 매거진에서는 그동안 엔젤클럽의 근간이 되는 '5년 엔젤'을 찾아 인터뷰를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5년 엔젤 특집란'을 꾸며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민이면 당연히 하는 일'이라며 정중하게 거절하시며 '조용히 후원하겠다'는 엔젤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다 시간이 갈수록 '5년 엔젤'이 늘어나는 만큼 제한 된 지면으로 5년 엔젤 분들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부터 '5년 엔젤'님들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소속만 밝히기로 한 점 널리 이해부탁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5년 엔젤 분들과 꾸준히 연락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별도로 담을 예정입니다. 보다 다양한 엔젤님들의 이야기로 찾아갈 예정이오니 좋은 소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5년 엔젤'은 지난호에 게재하지 못한 분부터 최근까지의 명단으로 이 중에는 5년을 넘어 6년 동안 후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함없는 후원에 감사드리며 10년 엔젤을 넘어 100년 엔젤을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100년 엔젤의 뿌리 5년 엔젤!




박순하 엔젤
(주)코너스톤 자산운용


박찬원 엔젤
문경시축구협회


박찬직 엔젤
미성회계법인


박춘선 엔젤
선미(주)


박태범 엔젤
(주)HB신소재


변창훈 엔젤
대구한의대학교


석한수 엔젤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성석훈 엔젤
(주)명덕건설


손대권 엔젤
DGB대구은행 제2본점


손상명 엔젤
(주)신아


손현구 엔젤
스파이 룩 카케어


신희영 엔젤
(주)아주텍


안홍윤 엔젤
YH바이오사이언스



양종호 엔젤
현대자동차


오진섭 엔젤
세무사 오진섭사무소


이병락 엔젤
경북대병원 시설과


이병우 엔젤
HOTEL여기어때 대구역점


이병훈 엔젤
(주)대구스텐레스


이상득 엔젤
태진테크


이상섭 엔젤
조아전자(주)


이성구 엔젤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원재 엔젤
(주)핑거스냅


이윤희 엔젤
한국알카리수(주) 수성구 대리점


이은호 엔젤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재호 엔젤
(주)한미인더스


이정훈 엔젤
(주)부성세라믹스


이준철 엔젤
태영전기


이칠모 엔젤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이헌 엔젤
(주)두강 , 코디박


장극윤 엔젤
영진수예침장


장수미 엔젤


장철광 엔젤
(주)유일


전병규 엔젤
일신프라스틱(주)


전용철 엔젤
(주)근우정공


전재옥 엔젤
(주)피플데이타


조성섭 엔젤
(주)도원이앤씨


조승우 엔젤
이지컴퍼니(주)


조혁준 엔젤
스카이 아카데미


최경목 엔젤
(주)수성정비서비스


최명환 엔젤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최미연 엔젤
대구은행

최원식 엔젤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윤연 엔젤


최주열 엔젤
팔달요양병원


하제연 엔젤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충호 엔젤
(주)플러스컴


하호만 엔젤
(주)티에스티홀딩스


허흥만 엔젤
(주)명성골프


홍효정 엔젤


강성길 엔젤
(주)디자인비전


고민환 엔젤
(주)상산건설


김오동 엔젤
명신종합건설 (주)


김진엽 엔젤
송산엘앤씨


도재영 엔젤
(주)웅진기업


문종혁 엔젤
(주)동화건설


박관식 엔젤
비에스치과교정과치과의원


박길상 엔젤
남북의료기상사


박명수 엔젤
(주)명진금속


박성진 엔젤
(주)꿈그린


박찬력 엔젤
(주)KB팩토리


반정욱 엔젤
미르건축(주)


배인호 엔젤
성호건설(주)


변화곤
삼화건업(주)


서정욱 엔젤
(주)MSC



성달표 엔젤
(주)현대통상


송준호 엔젤
한국PIM(주)


예춘호 엔젤
요셉성형외과


윤종현 엔젤
(주)세진이엔씨


이기식 엔젤
(주)현대스텐


이영순 엔젤
스마일개발(주)


이우삼 엔젤
(주)마스윈


이재표 엔젤
(주)제이에프


이창환 엔젤
(주)토담건축사사무소


임광호 엔젤
광명부부치과의원


장길화 엔젤
(주)세안정기


정영만 엔젤
농업회사법인제이아그로(주)


천자우 엔젤
(주)에슬린


최성주 엔젤
(주)동진금속


하윤수 엔젤
한국공조(주)


공윤욱 엔젤
율성회계법인

2002
DAEGU FC
Angel Club

힘들 때가 승부다!

그대들의 뒤에 우리가 있다. 힘내라 대구FC!

DAEGU FC REPORT

Photo by 대구FC

우리는 올해도 뜨거웠다!
2023 대구FC 5대뉴스!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도 대구FC 선수들은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했다. 시즌 중반에 큰 위기도 있었고, 주 공격수의 부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2년 만에 파이널A에 복귀하며 명문구단의 기반을 닦았다. 열정의 무대, 대팍은 올해도 매진 행진이 이어졌다. 대구FC B팀은 K4리그 준우승으로 K3리그 승격했다. 12월을 맞아 대구FC의 활약상을 5대 뉴스로 정리한다.



2023.12.03 이근호은퇴식에서 마지막을 팬들과 함께(Photo by 대구FC)

NEWS 1

태양의 아들, 이근호 선수 태양의 천사로 훨훨 20년 프로선수 생활 마치고 명예로운 은퇴

태양의 아들 이근호 선수가 20년의 프로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이근호 선수는 12월 3일 열린 2023년 하나은행 하나원큐 K리그1 2023 시즌 마지막 경기(vs 인천)를 마친 뒤 은퇴식을 갖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공교롭게도 이날 상대팀은 이근호 선수가 지난 2004년 처음 입단한 인천유나이티드. 이근호 선수는 2007년 대구로 이적 2시즌 동안 59경기 23골 9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빼어난 활약을 보였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첫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전성기를 보냈으며 일본과 카타르, 그리고 국내 프로팀에서 활약하다 2021년 13년 만에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대구로 돌아왔다. 우승 및 수상기록은, K리그1 우승 1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2012 AFC 챔피언스리그 MVP ·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국가대표로서 A매치에 출전해 84경기 19골을 기록하는 등 한국,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한 최고의 공격수다. 이근호 선수는 은퇴와 함께 대구FC엔젤클럽의 명예 엔젤에 가입, 태양의 아들에서 태양의 천사가 됐다. 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를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순수 시민모임이다.

NEWS 2

대팍은 만원사례! 11번째 전석매진 시즌 최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안방 DGB대구은행파크가 11번 가득 차며, 매진 기록을 세웠다. 올 시즌 개막전 매진을 시작으로 관중몰이를 했으며 9월 24일 포항전을 시작으로, 10월 8일 수원FC, 10월 21일 전북현대, 11월 11일 광주FC,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 12월 3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까지 5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11번째 매진기록은 지난 2019년 9회를 넘는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이다.





NEWS 3

대구FC 파이널A 2년 만에 컴백

대구FC가 올 시즌 중반 위기도 있었으나 가을부터 대반전을 시작, 32R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3 대 1 완승을 거두면서 파이널A 진출을 확정지였다.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대구 토종 고재현 선수는 경기 시작 15초만에 선취골을 기록, 역대 K리그 최단시간 득점 3위를 기록하는 등 대활약을 펼쳤다. 이로써 대구FC는 K리그에서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32라운드 전북 원정에서 첫골을 기록한 고재현이 원정석에서 대구 팬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모습.



NEWS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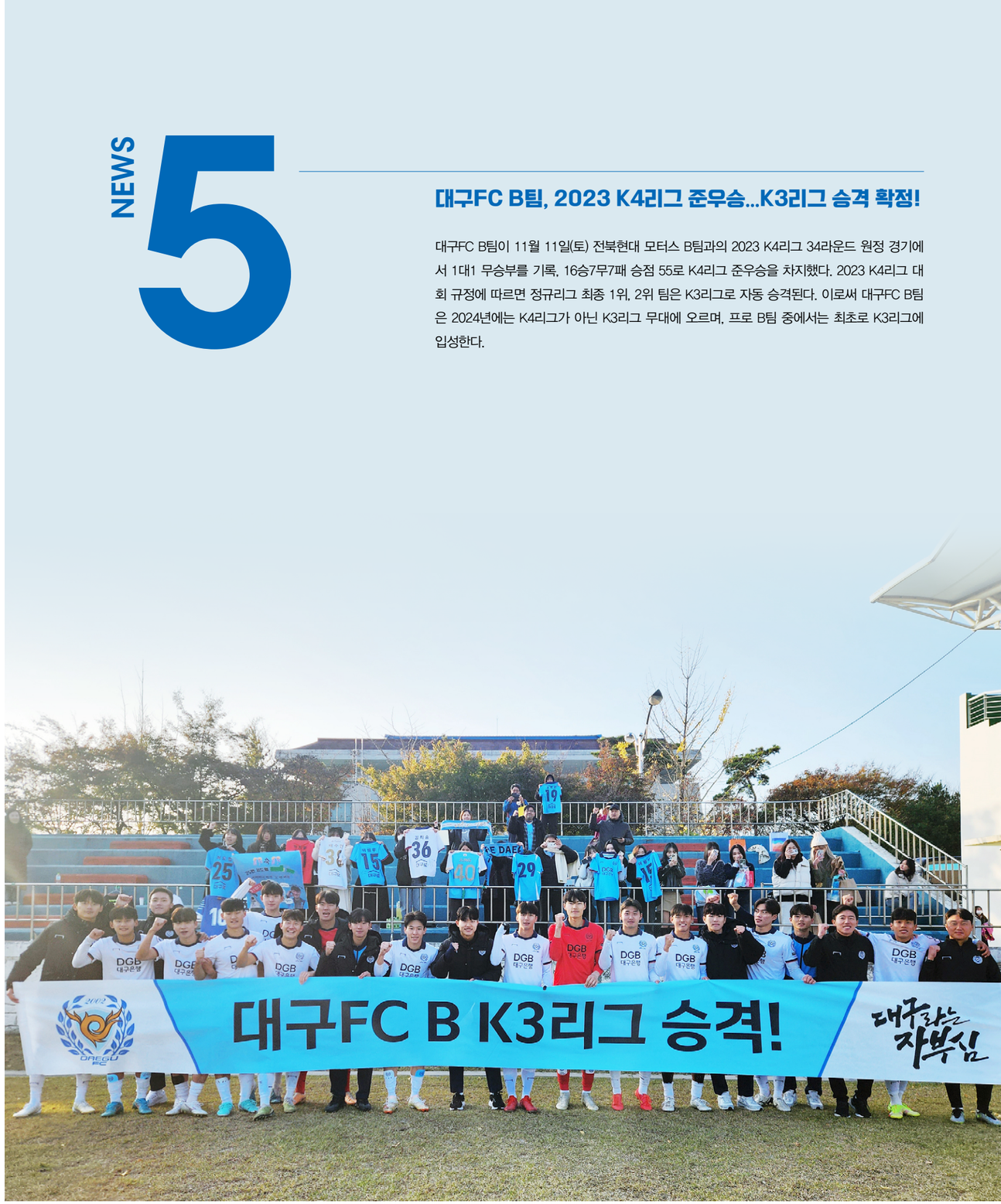
황재원 아시안게임 금메달 금의환향

대구FC 소속 황재원 선수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을 획득하고 금의환향했다. 대구FC에서도 미드필더로 주목받고 있는 황재원 선수는 9월19일 쿠웨이트 전에 선발 출전한 것을 비롯 전 경기에 주로 선발 출전했으며, 결승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동점골 도움에, 역전골의 기점을 기록하는 등 빼어난 활약을 펼쳐,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는데 큰 기여를 했다.

NEWS 5

대구FC B팀, 2023 K4리그 준우승...K3리그 승격 확정!

대구FC B팀이 11월 11일(토) 전북현대 모터스 B팀과의 2023 K4리그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 16승7무7패 승점 55로 K4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2023 K4리그 대회 규정에 따르면 정규리그 최종 1위, 2위 팀은 K3리그로 자동 승격된다. 이로써 대구FC B팀은 2024년에는 K4리그가 아닌 K3리그 무대에 오르며, 프로 B팀 중에서는 최초로 K3리그에 입성한다.



대구FC의 미래,

‘세진야’ 박세진과 엔젤의 만남

관중 가득한 대팍에서 뛸 때 가장 행복해

올 시즌 개막 전 부터 팬들에게 한 선수가 주목받았다. 바로 ‘2004년생 박세진 선수’다. 태성고등학교에서 10번을 달고 좋은 활약을 했던 박세진 선수는 여러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나, 확신을 줬던 대구FC에 입단했다. 동계전지훈련 당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기대에 부응하듯 등번호도 14번을 배정받았다. 빠른 발을 통한 탈압박 능력이 있으며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에 능해 팬들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시즌 초부터 ‘박세진, 박세진’ 노래를 불렀던 박성수 엔젤은 개막 첫날부터 박세진 선수를 마킹한 유니폼을 입고 다니며 ‘올 시즌 박세진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계훈련 기간 동안 남해에서 대학팀과 뛰던 박세진 선수의 플레이에 반해버렸다. 노재관 엔젤도 박세진 선수의 플레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아울러 ‘박세진’ 선수가 ‘세상에서’, 대구를 ‘진짜’ 사랑해주기를 기도하기도 했다. 두 엔젤은 박세진 선수와의 특별한 만남으로 행복해 했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감만 갖는 다면 충분히 대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

대구FC에는 ‘세징야’와 ‘세진야’가 있다! 올 시즌 박세진 선수가 활약하면서 얻은 애칭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그 이름에는 ‘세징야’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 팬들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안고 박세진 선수를 만나러 나선 두 엔젤을 따라가 봤다.

인터뷰 참가자



박세진(MF) 선수(이하 세)



노재관 엔젤(이하 노)



박성수 엔젤(이하 박)



Photo by 대구FC

박 엔젤클럽에 대해 알고있는지?
엔젤회원들에게 인사한마디 부탁드린다.

세 안녕하세요. 엔젤 여러분! 대구FC 미드필더 박세진 선수입니다. 항상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 편한 분위기를 위해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 한다.

가장 케미가 좋은 선수랑 3일 불모지 여행 가기 vs 좌 감독님 우 사장님과 7일 호화 여행 가기

세 '호화 여행'이란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그래도 그라운드에서 함께 땀을 흘리는 우리 선수들이랑 가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선수들과 호화여행을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K리그1 MVP vs 대구FC 리그 우승

세 개인적인 수상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팀 우승이 더 의미있겠지요. 지금 함께 하는 선수들과 우승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우승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 크게 기여한다면 혹시 제가 MVP가 될지도 모르지요(웃음).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뛰겠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떤 걸 구하겠는가?
축구공+축구화 vs 박세진 팬

세 당연히 팬이지요. 사실 프로선수가 된 것을 가장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저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인쇄된 유니폼을 입고 응원해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응원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박세진'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짓는 다면?

세 아~ 너무 쑥스러워요. 삼행시는 빼주시면 안되나요? 생각해 본적도 없고요...

(쑥스러워 대답을 못하는 박세진 선수를 대신해 두 엔젤이 삼행시를 지어보았다.)

박 '박'세진 선수는 '세'상에서 '진'짜 축구를 잘한다.

노 '박'세진 선수는 '세'징야처럼 '진'짜 대구FC를 사랑한다.

박 고등학교 졸업한 뒤 프로팀에서 러브콜이 많았는가?
대구로 입단하게 된 계기는?

세 러브콜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구FC가 가장 강력하게 그것도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신을 주었습니다. 선수들에게 확신 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요. 그래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노재관엔젤, 박세진선수, 박성수엔젤이 대구FC클럽하우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노 동계훈련에서 박세진 선수를 지켜본 팬들이 기대가 컸다. 실제로 3월 4일 2라운드(vs 제주)에 데뷔했다. 이렇게 프로 데뷔가 빠를 줄 알았는가?

세 선수라면 누구든지 빨리 프로 무대를 밟아보고 싶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막상 이렇게 빨리 프로 데뷔할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동계훈련 때는 2군에서 주로 뛰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감독님이 한 번씩 1군에 합류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운이 좋았어요. 그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데뷔 전의 경우는 경기 며칠 전부터 선발 선수들과 운동을 해서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뛴다고 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박 5월 13일 광주전, 데뷔골을 기록했다. 슛팅할 때 '이건 골이다'고 생각했는지? 프로 데뷔골에 대한 소감은?

세 슛을 하는 순간,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는 순간 골문의 빈공간이 보였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막상 골이 들어간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진짜 골이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골 세리머리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노 데뷔골을 넣고 '세진야'라는 별명이 주목을 받았다. 이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솔직하게 말해 그렇게 불릴 정도의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무래도 골을 넣고 해서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 주신 것 같은데, 그런 팬심에 보답하기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평소 케미가 잘맞는 선수는 누구인지?

세 고참 형들이 모두 잘 챙겨줘서 언제나 든든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 동생처럼 신경써 주지요. (고)재현이 형은 룸메이트라서 훈련할 때 패스도 좀 더 하게 되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대로 대구FC의 힘은 바로 '팀 분위기'죠. 모두 좋은 분들이고 그런 선수들과 생활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노 대구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세 최선을 다하는 선수, 또 팬들의 마음을 알고 보답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노재관, 박성수 엔젤의 바람은 어떨까?)

노 세징야 선수의 동상을 세워달라는 팬들이 많은데, 그 옆에 '세진야'라는 동상을 세워달라고 팬들이 요청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박 제가 시즌 초부터 박세진 선수를 마킹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이 유니폼을 오래오래 입고 다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박 다음에 득점을 하게 된다면 생각 해놓은 골 세리머니가 있는지?

세 첫 골을 넣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풀쩍 뛰어올라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재현이 형에게 안겼지요.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골을 넣어도 세리머니를 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프로선수가 된 만큼 온 만큼 골을 넣는다면 팬들을 위해 '하트'세리머니를 하고 싶어요.

노 평소 즐겨먹는 자신만의 보양식과 대구지역 맛집 추천해 달라

세 제 고향이 부산인데 훈련하고 식사는 주로 숙소에서 하다보니 잘 안 가게 되더라구요.
대구에 맛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 잘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특별히 보양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나름대로 챙겨 먹고 있어요.



photo by _moon.park



박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과 가장 닮고 싶은 해외선수는?

세 팀은 우리 팀과 유니폼 컬러가 비슷한 맨시티를 좋아합니다. 선수 역시 맨시티의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위너를 닮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패스할 때 보는 시야가 정말 좋지요. 킥도 좋구요. 저도 열심히 해서 케빈 더 브라위너 처럼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대구FC도 맨시티처럼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합니다.

노 앞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목표가 있다면?

세 프로선수가 되겠다는 1차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큰 꿈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대표선수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겠지요. 사실 저는 청소년 대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태극마크를 달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림픽 대표든 아시안게임 대표든 국가대표로 그라운드 위에서 뛰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얼마전 대구FC 황재원 선수의 활약을 보았을 것이다. 사실 대구팬은 선수가 너무 잘하면 대구FC를 떠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장난반 진담반 축구 실력을 저평가(밈) 하곤 한다. 그런 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 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를 아끼고 좋아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울러, 저 스스로 그렇게 팬들에게 화제가 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팬들이 대구FC를 떠날까 노심초사 하는 선수가 된다는 건 선수로서는 그만큼 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그런 밈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 진담이라고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구FC가 다른 K리그 구단이 가지지 못한 매력은 무엇일까?

세 무엇보다 운동장, 대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팬들로 가득 찬 관중석과 팬들의 함성은 우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이런 느낌은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노 요즘 K4리그에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 같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세 예전에 서울 중랑구립잔디구장에서 K4부리그 경기를 했는데 그곳까지 응원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축구팬이 많이 늘었고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월드컵 영향도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세 고등학교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어서 수비를 잘 안하는 편이었어요. 대구와서 3 4 3 전형으로 경기를 하다보니 수비에 대한 역할도 중요해졌어요. 감독님이 수비부분에 좀 더 역할을 해달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습관 때문에 잘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다 보니 요즘은 수비력도 좋아진 것 같지만, 앞으로 수비 부분과 함께 킥력을 보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 · 노 마지막으로 엔젤클럽 및 대구FC 팬들에게 바라는점을 이야기해달라.

세 팬들에게는 바라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워 우리들의 응원군이 되어주는 팬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선수들을 사랑해주신다면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빛낸

대구FC 선수들



1 GK 최영은

K리그 통산기록 76경기 91실점 0도움
생년월일 1995. 9. 26. | **신체** 189cm, 78kg



2 DF 황재원

K리그 통산기록 63경기 2득점 6도움
생년월일 2002. 8. 16. | **신체** 180cm, 73kg



3 DF 안창민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1. 6. 28. | **신체** 189cm, 81kg



7 DF 김진혁

K리그 통산기록 197경기 20득점 5도움
생년월일 1993. 6. 3. | **신체** 187cm, 78kg



5 DF 장성원

K리그 통산기록 97경기 1득점 10도움
생년월일 1997. 6. 17. | **신체** 175cm, 70kg



9 FW 에드가

K리그 통산기록 125경기 42득점 18도움
생년월일 1987. 1. 3. | **신체** 191cm, 87kg



6 DF 홍정운

K리그 통산기록 161경기 8득점 3도움
생년월일 1994. 11. 29. | **신체** 187cm, 76kg



11 FW 세징야

K리그 통산기록 232경기 88득점 58도움
생년월일 1989. 11. 29. | **신체** 177cm, 74kg



MF 벨톨라

K리그 통산기록 7경기 1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0. 1. 12. | **신체** 184cm, 74kg



MF 박세진

K리그 통산기록 30경기 1득점 1도움
생년월일 2004. 3. 19. | **신체** 171cm, 67kg



DF 케이타

K리그 통산기록 51경기 2득점 0도움
생년월일 1997. 12. 20. | **신체** 172cm, 70kg



FW 김영준

K리그 통산기록 7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0. 5. 2. | **신체** 184cm, 79kg



DF 김강산

K리그 통산기록 97경기 1득점 2도움
생년월일 1998. 9. 15. | **신체** 184cm, 78kg



DF 이원우

K리그 통산기록 5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3. 16 | **신체** 191cm, 80kg



FW 전용준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7. 16. | **신체** 180cm, 69kg



FW 고재현

K리그 통산기록 125경기 26득점 6도움
생년월일 1999. 3. 5. | **신체** 180cm, 74kg



GK 오승훈

K리그 통산기록 207경기 271실점 1도움
생년월일 1988. 6. 30. | **신체** 192cm, 75kg



FW 이근호

K리그 통산기록 386경기 80득점 53도움
생년월일 1985. 4. 11. | **신체** 176cm, 74kg



MF 서도협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1. 6. 25. | **신체** 178cm, 74kg



MF 이진용

K리그 통산기록 91경기 0득점 1도움
생년월일 2001. 5. 1. | **신체** 180cm, 73kg



FW 김동현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4. 17. | **신체** 173cm, 68kg



MF 최민기

K리그 통산기록 1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11. 8. | **신체** 180cm, 73kg



DF 홍철

K리그 통산기록 360경기 15득점 46도움
생년월일 1990. 9. 17. | **신체** 176cm, 70kg



DF 손승우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3. 18. | **신체** 176cm, 71kg



FW 박재현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9. 16. | **신체** 177cm, 69kg



FW 박용희

K리그 통산기록 4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3. 29. | **신체** 180cm, 74kg



GK 한태희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실점 0도움
생년월일 2004. 7. 5. | **신체** 196cm, 90kg



DF 윤태민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4. 10. 13. | **신체** 187cm, 80kg



MF 김희승

K리그 통산기록 14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1. 19. | **신체** 184cm, 81kg



FW 이종훈

K리그 통산기록 2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3. 21. | **신체** 175cm, 70kg



MF 배수민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3. 21. | **신체** 183cm, 73kg



DF 박재경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0. 4. 28. | **신체** 190cm, 80kg



DF 김리관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4. 2. | **신체** 184cm, 80kg



GK 한지율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실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8. 21. | **신체** 193cm, 90kg



DF 조진우

K리그 통산기록 91경기 3득점 2도움
생년월일 1999. 11. 17. | **신체** 189cm, 81kg



DF 신한결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1. 11. 13. | **신체** 175cm, 71kg



DF 정윤서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4. 11. 13. | **신체** 193cm, 83kg



DF 유지운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4. 7. 22. | **신체** 172cm, 68kg



MF 이용래

K리그 통산기록 293경기 19득점 20도움
생년월일 1986. 4. 17. | **신체** 175cm, 71kg



GK 이준희

K리그 통산기록 27경기 30실점 0도움
생년월일 1993. 12. 10. | **신체** 192cm, 89kg



FW 바셀루스

K리그 통산기록 28경기 5득점 1도움
생년월일 1998. 7. 19. | **신체** 182cm, 82kg

Thanks ANGEL CLUB

ANGEL DIARY

대구FC엔젤클럽이
2024년 대구FC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대영에코건설

대영에코건설(주) 이호경 회장

(주)다원아이디
정영준 상임이사

(주)애드앤피알스미스
이태훈 상임이사

오늘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정영 홍보실장

히아브하나써비스
김상수 상임이사

(주)빌사부
송원배 상임이사

(주)광진종합건설
안상영 상임이사

히야컴퍼니
조태근 상임이사

KB라이프파트너스
김강수 운영이사

삼성생명
김규정 운영이사

(주)퍼시픽링스 코리아
김동국 운영이사

굿네이버스
김동휘 운영이사

부경TS
김상덕 운영이사

세광종합상사
김종선 운영이사

뉴부림고속관광
문홍국 운영이사

(주)코람
박상욱 운영이사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수 운영이사

스파이 룩 카케어
손현구 운영이사

상동버거
이윤희 운영이사

선미(주)
이칠모 운영이사

세영회계법인
강병규
상임부회장

(주)뷰티코하트
백무연
상임부회장

동명테크윈(주)
심인철
재정부회장

(주)창성산업
정소영
상임부회장

이지컴퍼니(주)
조승우
상임부회장

라벨바즈
조민지 운영이사

디자인해밀
조병래 운영이사

다지행법률사무소
최주희 운영이사

대구풋살연맹
최태원 운영이사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제연 홍보이사

영진기공
현정규 운영이사

박금화 운영이사

박혜영 운영이사

누리전기
박성호 운영이사

신흥산기
이종우 운영이사

㈜우신산업
황재민 운영이사

㈜우진설비
박명규 운영이사

김기나 운영이사

대양정밀
김재우 운영이사

Diamond An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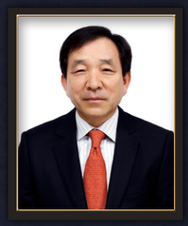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와 영원히!



이충곤
SL(주)



백서재
대영전자(주)



김상태
(주)PHC



성점화
(주)뉴프라임



이기환
거한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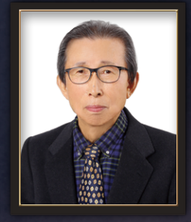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진영환
삼익THK(주)



조종수
(주)서한



현수환
(주)동원약품



황인혁
인성데이타(주)



최영수
크레텍



이창원
거림테크(주)



이명수
(주)진양오일씰



노기원
(주)태왕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김동구
금복홀딩스(주)



박해대
미래테크(주)



박효정
홈마트 시지점·옥산점



김영만
우성철강(주)



김재홍
대호약품



김용범
(주)에스알

※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순입니다.

대구FC Angel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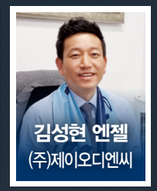
2023 신입엔젤


최흥로 엔젤
흥아공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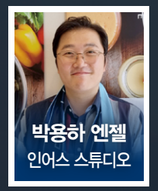

이동철 엔젤
(주)태동건설


감병원 엔젤
(주)세명개발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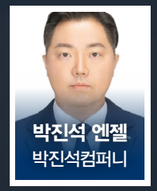

곽진훈 엔젤
(주)삼보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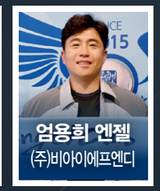

김성현 엔젤
(주)제이오디엔씨


노인택 엔젤
(주)에이치티인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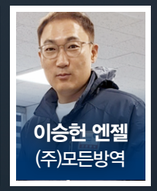

박용하 엔젤
인어스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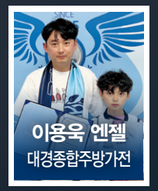

박재용 엔젤
천우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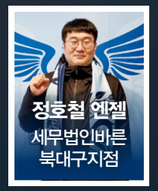

박진석 엔젤
박진석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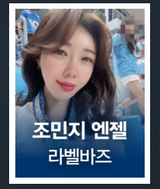

엄용희 엔젤
(주)비아이에프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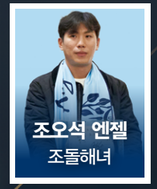

우동훈 엔젤
에스파스


이승헌 엔젤
(주)모든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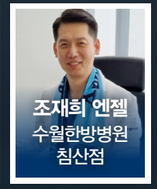

이용욱 엔젤
대경종합주방가전


정호철 엔젤
세무법인바른
북대구지점


조민지 엔젤
라벨바즈


조오석 엔젤
조돌해녀


조재봉 엔젤
(주)한백디엔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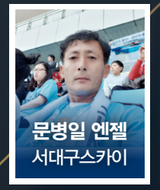

조재희 엔젤
수월한방병원
침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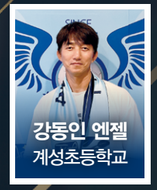

조준형 엔젤
제이에스메디텍


천주교
대구대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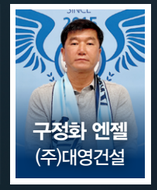


한철희 엔젤
(주)세원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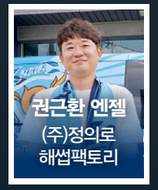

문병일 엔젤
서대구스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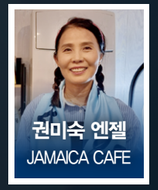

강동인 엔젤
계성초등학교


강현영 엔젤
UNION축구클럽


구정화 엔젤
(주)대영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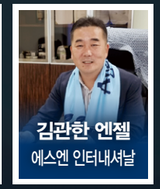

구학회 엔젤
덕영치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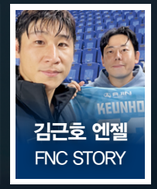

권근환 엔젤
(주)정의로
해썹팩토리


권미숙 엔젤
JAMAICA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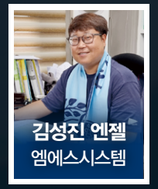

권영기 엔젤
(주)문성전자


권재득 엔젤
(주)벽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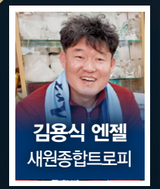

김관한 엔젤
에스엔 인터내셔날


김근호 엔젤
FNC STORY


김도균 엔젤
(주)경신유통


김성진 엔젤
엠에스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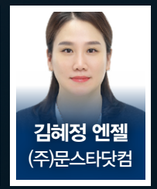

김영만 엔젤
(주)향천


김용식 엔젤
새원종합트로피


김재수 엔젤
씨앤에프


김지호 엔젤
도매유리


김창식 엔젤
대구은행 방촌지점


김혜정 엔젤
(주)문스타닷컴

김희원 엔젤
(주)엘림개발

박경동 엔젤
(의)경동의료재단

박성주 엔젤
그린 플라워

박영훈 엔젤
홈마트 신대점

박정필 엔젤
(주)이투

박종현 엔젤
리얼

박진형 엔젤
(주)제이에이치피

박창희 엔젤
(주)창성개발

서재원 엔젤
삼층생고기집

석재철 엔젤
석산복어

손영진 엔젤
학문당입시학원

손학수 엔젤
건축사 사무소 우아

송대호 엔젤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

송정민 엔젤
대구큰사랑
요양병원

신재호 엔젤
경북대학교

신태환 엔젤
태일종합건설(주)

여준현 엔젤
무궁화
직업전문학교

여태형 엔젤
법무법인 남일

우찬정 엔젤
가온인테리어

원종화 엔젤
(주)삼원워터

윤병락 엔젤
정원창호 디자인

이도현 엔젤
대구FC
전 미래기획실장

이상경 엔젤
(주)이경산업개발

이승임 엔젤
방어진 범어점

이정우 엔젤
(주)안심농장
직영식육식당

이정우 엔젤
대호에어테크

이종건 엔젤
메이트

임수근 엔젤
달구벌크레인

임하랑 엔젤

전한석 엔젤
거목광고

제현태 엔젤
고려H한방병원

조광민 엔젤
삼우공업사

조대현 엔젤
두리간병센터

조재현 엔젤
역전할머니맥주
대구율하점

조현호 엔젤
대흥수지

주기홍 엔젤
에프앤에스

채인수 엔젤
(주)효성텍스타일

최경식 엔젤
충산바른
신경외과의원

최유승 엔젤
(주)윤성산업개발

최준기 엔젤
무소 한우농장

최현환 엔젤
대구로

화성산업(주)

황경동 엔젤
(주)패션스토리

황종후 엔젤
미소횟집

이영철 엔젤

문근웅 엔젤
대한민국
육군 군무원

오세학 엔젤
JM테크

이창수 엔젤
(주)스마트이앤씨

김동조 엔젤
(주)플레이위즈

이경호 엔젤
대경ENG

신솔 엔젤

대구FC Angel Club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감병원	(주)세명개발자원
강동인	계성초등학교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강봉준	글꼴연구소 붓소리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강신일	대영리츠건설(주)
강윤석	(주)조안
강은주	(주)더블루팜
강일규	대서산업(주)
강일만	(주)세신엔지니어링
강정숙	테라앤수(주)
강정영	오늘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종구	현대코퍼레이션(주)
강준기	(주)포머스
강철원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강태중	(주)한도엔지니어링
강현영	UNION축구클럽
강환수	(주)덕산코트랜
경산상공회의소	
고경집	
고민환	(주)상산건설
고삼규	보광병원
공영우	동성건재판매(주)
공윤욱	율성회계법인
곽덕섭	(주)태명개발
곽동호	곽치과병원
곽재훈	운경재단
곽준성	삼성전자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곽진순	초석 세무회계 사무소
곽진훈	(주)삼보스틸
구건우	PR네트웍스
구명임	(주)크린포시스템
구정화	(주)대영건설

성명	회사명
구학회	덕영치과병원
권경훈	새강북연합정형외과
권근환	(주)정의로 해썹팩토리
권미숙	JAMAICA CAFE
권석원	동진건설(주)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권영갑	(주)EMS
권영기	(주)문성전자
권영진	전 대구광역시장
권영희	(주)한국알파시스템
권오길	한성건설주식회사
권오복	(주)진명아이앤씨
권오상	(주)대광솔라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권오순	(주)디에스시스템
권오종	(주)대유기전공사
권오춘	(주)아름다운건설
권일경	(주)위드
권장대	(주)세화정공
권재득	(주)벽진산업
권재원	(주)아우노
권주택	(주)갑산전기
권혁기	(주)산동개발
권혁준	요셉성형외과의원
금영일	(주)고위드
김갑태	(주)아름
김강수	KB라이프파트너스
김경록	신도대구사무기
김경식	대곡자동차매매상사
김경태	리더스금융판매(주)
김관한	에스엔 인터내셔날
김광배	대영에코건설(주)
김광수	(주)한맥창호
김귀현	VAMOS 축구센터
김규정	삼성생명

성명	회사명
김근호	FNC STORY
김기나	
김기현	(주)기남금속
김길생	(주)동화주택
김남호	더원창호
김대엽	(주)대영일루션
김대훈	금탑한의원
김도균	(주)경신유통
김도헌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김동국	DK글로벌코리아
김동규	피자팜비어 대구FC침산점
김동조	(주)플레이위즈
김동휘	굿네이버스
김말분	
김명수	(주)대남건설
김명용	(주)명성
김명일	
김민태	동화주택
김범일	전 대구광역시장
김범헌	(주)한라이앤씨
김병오	필즈학원
김보성	(주)가온메디칼
김상걸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
김상덕	부경TS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상수	청운신협
김상수	히아브하나써비스
김상호	(주)내일건설
김석	(주)삼덕아스콘
김석호	한도식품(주)
김성곤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김성관	(주)이슬나라
김성덕	소프탭코리아
김성렬	(주)대성건업
김성열	(주)아나

성명	회사명
김성은	(주)다무산업개발
김성준	(주)지엔비모터스
김성진	엠에스시스템
김성현	(주)제이오디엔씨
김성호	(주)오상인터네셔널
김성호	성산종합건설(주)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턴트
김수원	경기자수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김순조	삼성생명COT
김승우	KS상사
김승필	(주)삼성프린팅솔루션
김애경	
김양우	(주)티앤지코리아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영만	만석산업개발
김영만	(주)향천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김영식	영진전공
김영식	굿락코리아
김영엄	지디종합건설(주)
김영준	변호사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김오동	명신종합건설 (주)
김완준	(주)제이아이디
김용규	(주)창녕참우축산
김용식	(주)청맥산업
김용식	새원종합트로피
김용찬	(주)보광건설
김우일	(주)김샘교육
김원수	세무사 김원수 사무소
김의수	(주)화산종합건축개발
김재범	율성회계법인
김재수	씨앤에프
김재영	(주)테힐라

성명	회사명
김재우	(주)삼일기업
김재우	대양정밀
김재율	(주)영림INT
김재필	(주)주안디앤씨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김정달	현대동구서비스
김정미	멀티애드
김정수	경북대학교병원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김정철	경북대학교병원 모발이식연구센터
김정희	김정희 건강피부관리실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김종욱	(주)계림씨엔디
김종운	신화건축
김종철	신흥버스(주)
김종태	(주)제이제이건설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주현	(주)신안피피
김주환	경안플랜트, 경안솔라
김준헌	(주)더마코아
김준현	가람건축사사무소
김중곤	ADT캡스
김지관	(주)그린하니컴
김지만	대구광역시축구협회
김지호	도매유리
김진성	푸르덴셜생명
김진엽	송산엘앤씨
김진홍	대구수성우체국
김창식	
김충환	대구공고총동창회
김치호	(주)도영전설
김태건	공간이룸
김태균	(주)에디커뮤니케이션즈

성명	회사명
김태길	피앤에이
김태수	대구자동차정비조합
김태훈	(주)태경건설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주)
김헌만	서원종합건설(주)
김현철	에인에이(주)
김형동	전 대구광역시 대외협력특보
김형식	(주)동인전력
김형찬	울트라메탈
김혜정	(주)문스타닷컴
김호용	(주)건강누리
김호철	(주)더바른컴퍼니
김홍식	TBC
김흥만	엔젤클럽홍보작가
김희원	(주)엘림개발
나재승	(주)더모나코그룹
남경문	(주)에스엠디앤씨
남규동	디에이치지(주)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노규영	(주)명일품
노병수	전 영남일보 사장
노성식	(주)도시와풍경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노영균	열린요양병원
노인택	(주)에이치티인테크
노재관	대구청원경찰노동조합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노혜영	
달서구축구협회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축구단	

대구FC Angel Club

성명	회사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도원호	혜성정공
도재영	(주)웅진기업
류광열	(주)원재산업
류영애	류영애세무회계사무소
류효충	신라산부인과
류훈	(주)중앙세라믹스
문근웅	대한민국 육군
문병일	서대구스카이
문성균	(주)명성시멘트
문준기	대경맥주(주)
문현훈	
문홍국	뉴부림고속관광(주)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민춘홍	(주)한국파이프
박경동	(의)경동의료재단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박경우	(주)현창건설
박경환	변호사 박경환 법률사무소
박관식	비에스치과교정과치과의원
박금화	서라벌대학교
박기원	아트건업
박기자	(주)무영
박길상	남북의료기상사
박도필	농협은행 주식회사
박두한	오르다승무원학원
박명규	(주)우진설비
박명수	(주)명진금속
박민천	(주)다온PLUS
박배창	(주)청도샘물
박병구	전 대구미술협회장
박병수	(주)동일스테인레스
박병욱	(주)달인식품

성명	회사명
박병준	HC보광
박상열	박상열세무회계사무소
박상욱	(주)코람
박상환	경덕철강공업(주)
박석현	TBC
박성묵	대광문화인쇄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주	그린 플라워
박성진	(주)꿈그린
박성호	금강운수(주)
박성호	누리전기
박세진	
박소민	디자인그린
박소이	미래테크(주)
박순하	(주)코너스톤 자산운용
박승환	(주)처갓집양념치킨
박신후	(주)스마일그린
박영일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박영훈	홈마트 신대점
박용하	인어스 스튜디오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박운규	보승종합물류(주)
박윤경	케이케이(주)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박은성	
박익진	엔젤클럽홍보작가
박인호	(주)삼영이앤티
박재용	천우섬유
박재현	(주)신우씨엠디
박정민	(주)칸여행사
박정수	중원전력주식회사
박정일	대구FC 장내아나운서
박정필	(주)이투
박종률	대성에너지(주)
박종철	(주)우일건설

성명	회사명
박종현	리얼
박종화	(주)세보종합건설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박준규	(주)이노베이션
박준섭	변호사 박준섭법률사무소
박진석	박진석컴퍼니
박진숙	동일가구
박진우	(주)효성종합건설
박진형	(주)제이에이치피
박찬력	(주)KB팩토리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박창훈	선경산업
박창희	(주)창성개발
박철웅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박춘선	선미(주)
박춘영	경산 인터불고CC
박태범	(주)HB신소재
박태영	(주)케이아이티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박한상	KBI메탈(주)
박한석	
박해동	강북요양병원
박혜영	
박홍순	경동상사
박홍철	(주)신흥메탈
박흥식	(주)NS디자인
박희경	
박희진	은성복어
반용석	반치과
반정욱	미르건축(주)
방원주	(주)포항융합티앤아이
배경미	
배문구	승창침장

성명	회사명
배상원	상원종합식품, 오대양식품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배성훈	(주)성훈건축
배성희	고려피아노악기사
배용상	고광산업(주)
배인규	(주)한남라이팅
배인호	성호건설(주)
배장수	진명전력(주)
배종찬	기성광고
배진범	미래써모텍
배태관	비앤에이
백경애	덕영치과기공소
백덕열	지오종합건설(주)
백무연	(주)뷰티코하트, 비아이티살롱
백순정	내추럴프러스
백승한	홍림곱창
백운규	(주)우림종합엔지니어링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변화곤	삼화건업(주)
사공득	태령종합건설(주)
서기수	즐거운세상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서대구JC특우회	
서동국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서상인	(주)NCT
서상훈	카지수학학원
서순옥	(주)미래테크
서재원	
서정우	신성기업
서정욱	(주)MSC
서정원	(주)대선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서준덕	중앙요양병원

성명	회사명
서찬교	(주)대원전기
서철현	대구대학교
서태일	(주)에스티아이
서태현	(주)산동개발
서태호	한성특수금속열처리
석재철	석산복어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성달표	(주)현대통상
성석훈	(주)명덕건설
성수환	신영남산업(주)
손대권	DGB대구은행 제2본점
손상명	(주)신아
손상주	
손성태	에스제이에프(주)
손수완	(주)수경
손영진	학문당입시학원
손지영	삼성스토어 경산본점
손학수	건축사 사무소 우야
손현구	스파이 룩 카케어
송국영	(주)태왕
송대호	대구광역시동구체육회
송원배	(주)대영레데코
송정민	대구큰사랑요양병원
송준기	지산치과
송준호	한국PIM(주)
송진오	(주)아이에스메이드
송채은	
송춘희	(주)대경CM
신경우	부창솔라(주)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신기영	ARSTOMA
신기호	아주산업(주)
신솔	
신용범	(주)한미산업
신인철	

성명	회사명
신재호	경북대학교
신정현	TGF골프
신태환	태일종합건설(주)
신희영	(주)아주텍
심인철	동명테크윈(주)
아니엘리	세징야부인
안상영	(주)광진종합건설
안승민	(주)상봉종합건설
안유학	와이디자인랩
안조셉	미래테크(주)
안종수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안철우	우림간병센터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양승원	경북동부신문
양승혁	인문사
양종호	현대자동차
엄달현	(주)대창엠코
엄용희	(주)비아이에프엔디
엄재국	(주)3H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여상훈	법무법인(유한)클라스
여인찬	(주)수안
여준현	무궁화직업전문학교
여태형	법무법인 남일
영남대학교 의료원	
예영숙	삼성생명
예춘호	J요셉성형외과
오대국	(주)에스디지엔텍
오세학	JM테크
오승호	에스유산업건설(주)
오인식	(주)신정기공
오재완	(주)한국키네티코엔지니어링
오진섭	세무사 오진섭사무소
우경호	한국팜비오
우동훈	에스파스

대구FC Angel Club

성명	회사명
우영제	(주)한영
우주택	(주)명산
우찬정	가온인테리어
원종화	(주)삼원워터
유병완	엔젤클럽홍보작가
유상석	금복홀딩스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윤귀자	삼성생명
윤남수	(주)아석전기
윤덕근	침산올바른통증의학과의원
윤민환	씨엠케이푸드
윤병락	정원창호 디자인
윤종현	(주)세진이엔씨
윤창섭	(주)골든비
윤희영	디자인디오
이강태	(주)한국오아시스
이강하	(주)아스코
이경숙	(주)미식주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경호	대경ENG
이관형	대원상사
이광해	아사다라 한우셀프센터
이기식	(주)현대스텐
이나은	
이대형	세계실업(주)
이덕록	(주)서보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이도현	대구FC 전 미래기획실장
이동건	SK건설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동관	매일신문
이동명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이동원	변호사이동원법률사무소
이동진	(주)선진라이프
이동철	(주)태동건설

성명	회사명
이동환	(주)풀토래
이두원	(주)DRK
이명현	(주)동광명품도어
이문열	(주)대신공영
이병락	경북대병원 시설과
이병우	HOTEL여기어때 대구역점
이병재	바칸파트너스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이복희	(주)광덕전력
이상경	(주)이경산업개발
이상길	대구엑스코
이상득	태진테크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상완	금오상조의전
이상일	(주)제스코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성동	(주)금보종합건설
이성배	(주)예가
이승용	(주)동원약품
이승임	방어진 범어점
이승헌	(주)모든방역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영순	스마일개발(주)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이영철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이용욱	대경종합주방가전
이용재	석문전기(주)
이우삼	(주)마스윈
이원영	평산개발건설
이원재	(주)핑거스냅
이윤경	성악가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이윤희	상동버거

성명	회사명
이은준	SJ홀딩스
이은준	광개토병원
이은호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응상	(주)한승계기
이응찬	(주)건화
이재식	(주)아이델
이재철	DGB대구은행
이재표	(주)제이에프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이정미	아사무역
이정우	(주)안심농장직영식육식당
이정우	대호에어테크
이정훈	(주)부성세라믹스
이종건	메이트
이종우	신흥산기
이종우	(주)풍문
이종원	(주)코그
이주안	
이준철	태영전기
이준호	호신섬유(주)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이중호	(주)세신정밀
이중호	(주)대영알앤티
이지영	
이지환	VIP응급환자이송센터
이진백	지엔비오토모빌(주)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이창수	(주)스마트이앤씨
이창환	(주)토담건축사사무소
이칠모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이태현	법무법인마음
이태훈	(주)애드앤피알스미스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이헌	(주)코디박

성명	회사명
이헌수	MG새마을금고 대원
이현규	미성회계법인
이형원	일성침장
이형진	하이미트피앤비
이호경	월드산업(주)
이호경	대영에코건설(주)
이화선	화선(주)
이희준	SGI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이희채	이희채건축사사무소
인재현	벱하노이 삼덕점
임광호	광명부부치과의원
임상택	위드고
임수근	달구벌크레인
임익기	(주)브라이튼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임종규	영남전기관리(주)
임하랑	
임화자	예쁜유치원
임흥규	대평산업개발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장길화	(주)세안정기
장동렬	경산건업(주)
장병배	상인성당
장선윤	아쿠스코리아
장성태	대한개발
장세주	(주)한국파크골프
장세철	(주)고려건설
장수미	
장용호	(주)나라산업
장우영	대구보건대학교
장원규	(주)화성
장원용	
장익현	장익현법률사무소
장재화	(주)창녕참우축산
장정걸	(주)카리스조명

성명	회사명
장정숙	자원환경
장정호	법률사무소 장
장철광	(주)유일
전병규	일신프라스틱(주)
전성근	SK반야월대리점
전성봉	오케이포인트마트
전용수	(주)신동아전세관광
전용철	(주)근우정공
전재옥	(주)피플데이타
전중달	제이디건설(주)
전진길	(주)다원이앤씨
전한석	거목광고
전해영	(주)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정대식	OK정육
정모경	정원자카텍
정민교	대영채비(주)
정병환	(주)삼보이데아
정봉길	가조종합개발주식회사
정성인	GJ에셋
정소영	(주)창성산업
정연일	한패밀리병원
정연환	삼진이엔피
정영만	농업회사법인제이아그로(주)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정영석	카즈 정비공장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정용화	(주)대서케미칼
정일균	(주)다온시스템
정재석	(주)탑메디케어
정재호	초록들코리아(주)
정정국	(주)지엠이앤씨
정창룡	매일신문
정태경	(주)대성건업
정태균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성명	회사명
정형우	(주)아이디어하이
정혜성	한국전통채색 화가
정호균	메디피아
정호용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정호윤	건축사사무소청연
정호철	세무법인바른 북대구지점
정희원	(주)동화건설
제현태	고려H한방병원
조광래	대구FC
조광민	삼우공업사
조군삼	대신화물
조대현	두리간병센터
조두석	(주)애드메이저
조득환	(주)금강알텍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조민규	프로골퍼
조민성	동영염직(주)
조민지	라벨바즈
조병래	디자인해밀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조성수	(주)에이엘테크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조영래	(주)건축사사무소 원형건축
조오석	조돌해녀
조용호	(주)어펙시스템
조장형	(주)나래피움
조재봉	(주)한백디엔씨
조재현	역전할머니맥주 대구율하점
조재희	수월한방병원 침산점
조정연	(주)대청디엔씨
조준형	제이에스메디텍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조태근	(주)히야컴퍼니
조해녕	전 대구광역시장
조혁준	스카이 아카데미

대구FC Angel Club

성명	회사명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
조현호	대흥수지
주기홍	에프앤에스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진기명	100세동안
진혜윤	(주)보강디엠에스
차상대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주)
차성범	(주)삼인프라임
차순봉	선우종합건설(주)
차영규	(주)민영산업
차영진	제일컴
차인석	(주)대성엔팍스
차훈일	(주)샘초롱농업회사법인
채인수	(주)효성텍스타일
천용구	(주)가우
천자우	(주)에슬린
천종열	(주)윤성건설
천주교대구대교구	
천해성	(주)하림조경
최경목	(주)수성정비서비스
최경수	(주)삼익테크
최경식	중산바른신경외과의원
최고현	MBC
최규락	동양이엘
최길영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최동욱	(주)한라공영
최만수	인터불고CC
최명수	오성주류판매(주)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최미연	대구은행
최선주	(주)연호개발
최성주	(주)동진금속
최영철	(주)삼코

성명	회사명
최오원	(주)이렌트카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최원식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유승	(주)윤성산업개발
최윤연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최은석	참조은병원
최익진	(주)풍국면
최인철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최일권	현대건설기계대구경북판매
최재호	(주)골든크라운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최종해	동양종합건설(주)
최주열	팔달요양병원
최주희	다지행 법률사무소
최준기	무소 한우농장
최창배	신항도시개발(주)
최태원	대구시풋살연맹
최현환	대구로
최환	더블유에셋(주)
최효욱	(주)월성주택건설
최흥로	흥아공업사
추재엽	대영에코건설(주)
추화엽	대성그린텍
표병관	(주)지에스탑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하승우	하승우 내과
하영구	명진푸드
하윤수	한국공조(주)
하제연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충호	(주)플러스컴
하호만	(주)티에스티홀딩스

성명	회사명
한도준	삼익키리우(주)
한동근	의료법인해성병원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한철희	(주)세원툴스
허성규	우진시스템(주)
허성환	칠곡경북약국
허원회	HK GOLF
허정수	명진약품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셀
허진걸	(주)영산전기
허진구	(주)일성건설
허흥만	(주)명성골프
현성철	(주)이노스벤
현정규	(주)영진기공
형충희	태양인 이제마 한의원
홍민수	(주)우람
홍장헌	(주)엔와이엔
홍효정	
화성산업(주) 대외협력팀	
황경동	(주)패션스토리
황대연	삼오산업가스
황병우	대구은행
황신우	(주)신우씨엠건설
황우곤	(주)피아이에이인프라
황재민	(주)우신산업
황종길	성신내장건설(주)
황종후	미소횟집
황현호	인터테크(주)

대구FC Angel Club 엔시오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강다흰	
강동진	
강민정	
강석우	
강예동	
강예찬	
강준식	
강지은	
강호영	(주)기안전기통신
고병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영훈	
고유정	
고재근	
공남기	
곽정현	LX판토스
구경태	(주)하헌주온열건강과학
구본도	렉서스 대구
구본일	파워트윈스
구태경	
권구호	대한민국 해군
권미향	
권민석	
권순철	
권영경	MYZ무역
권지웅	
권진희	
금정빈	
기영노	
김결이	스피치킴교육
김경기	(주)퓨어마인드
김광배	(주)애드우드커뮤니케이션즈
김광수	
김규석	
김기림	
김기주	
김기태	대구소방본부
김남수	
김노영	(주)제이에스엔지니서링 대구사무소
김대원	명문제약
김도범	멜로우비트실용음악학원

성명	회사명
김도은	
김도희	편앤펀
김동수	비락
김동언	자영업
김동형	한국기상산업협회
김령경	이지컴퍼니(주)
김만홍	자영업
김명준	
김민기	
김민석	세부 암스테르담 호핑투어
김민영	
김민철	
김보민	
김보민	
김상겸	
김상길	서구청
김상도	(주)셀띠끄
김상우	우경포스
김상일	개인사업
김선우	
김선욱	
김성도	대한공업
김성수	하오커 (메세나폴리스점)
김성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김성호	
김소영	
김소윤	희망약국
김시윤	인천미송유치원
김시현	농협
김영경	다이나믹엔젤스
김영민	
김영민	화영테크
김영삼	굿락코리아
김영수	대법원
김영욱	굿락코리아
김영일	야베스정보통신
김영호	(주)이튜
김윤섭	캠핑리버
김은설	
김은숙	서울떡집

성명	회사명
김은주	(주)JJD
김은지	다이나믹엔젤스
김은지	
김인화	
김재용	(주)한국알파시스템
김재현	대영에코건설(주)
김재환	(주)한일통신
김정민	매천중학교
김정수	
김정식	
김정식	
김정연	새평화약국
김정원	고려 컨설턴트
김정은	
김정훈	
김종도	대구시 서구청
김주연	
김준현	
김준희	
김지은	
김지훈	
김진욱	
김진희	금복주
김창귀	
김창섭	(주)나래시스템
김채섭	매그나칩반도체
김태우	익도관세법인
김태정	
김태진	대구은행
김태호	
김학건	대명화학
김한우	EZ컴퍼니
김현민	DB손해보험
김현범	VIP축구단
김현승	월앤비전
김현용	성진포머
김현준	리서치코리아
김현준	
김현호	미래혁신정형외과
김형준	한국환경공단

대구FC Angel Club 엔시오

성명	회사명
김형훈	(주)하츠
김혜민	반디유치원
김혜정	한국벤딩
김호근	아진상사
김홍복	(주)가람
김화진	(재)한국의학연구소
김효정	
나광무	엘리바덴
남기용	
남유진	
남정국	
남희건	현대자동차
노의찬	에스엘
노태열	에스엘테크
노태호	
도경록	
도기만	삼성생명 대구법인지역단
도영경	
도예준	대한민국 공군
도윤록	주식회사 신광
류경남	(주)런시스템
류성민	
류재훈	대구소방
류창현	BJ창현스튜디오 LIVE
문수현	
문신혜	
문윤광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문재근	한국야쿠르트
문재성	
문재웅	(주)시너지어스
문재호	(주)대산
문제성	아스텍(주)
문준혁	카츠현 동대구점
문희제	
민제홍	
박건일	군위군청
박경식	이프비즈
박경원	
박경태	AIG
박경환	

성명	회사명
박규태	투페이스옵티칼
박도현	
박미성	
박범석	
박병진	(주)다온산업
박병호	기업은행
박상우	쌍박company
박석진	
박선우	
박성택	한국퓨얼셀
박수빈	
박수용	자영업
박수정	
박승찬	
박시우	
박용민	
박은희	유라클
박장훈	
박재우	세부퍼시픽 카고
박재욱	
박재웅	성서 동산병원
박재현	갤럭시관광호텔
박종극	성우실업
박종욱	최상익 류안나법무사 사무실
박종필	대호약품
박종혁	
박종호	
박주희	주스토리
박준범	(주)신영엘에스
박준원	
박지성	
박진규	매일신문
박진수	
박진우	제이디아이테크
박청기	에스케이렌터카(주)
박태우	새한크리스탈
박한얼	
박현정	주식회사JID
박효근	
박희곤	

성명	회사명
방소희	
배병근	현대자동차
배순형	VIP축구단
배일한	그로윈
배창형	양광테크
백권호	영남대학교
백남석	
백성훈	변호사 민충기. 법무사 김일동 사무소
백진수	자영업
변상범	(주)다현
변용덕	스카이물류
사공나영	
서명욱	
서승열	VIP축구단
서은혜	에이케이테크대구지사
서장원	(주)전진이엔지
서정순	
서창덕	엠엠티
서해찬	
서형오	
성웅	히로텔
소재원	신애상사(주)
손동우	
손지현	더월
손판길	
손형준	
손혜인	
손홍모	
송가연	
송경규	에이스오일
송경한	
송명준	
송병호	
송영빈	
송영빈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송외숙	
송정화	
송지환	원진산업
송치완	
신경철	톤앤튜

성명	회사명
신광모	
신세영	
신재민	LG전자
신중헌	소노인터내셔널
신지환	북부소방서
신형섭	
심남호	월덱스
심준수	대양제지공업(주)달성공장
안겸	(주)오토탑
안인호	
안재선	
안태윤	(주)해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양다혜	
엄태연	
여하영	
염승종	
오경희	
오범석	경상공업고등학교
오승준	
오영식	
오정아	
오진석	구지중학교
오해윤	
옥진호	대륙 기초건설
우순월	
우창윤	도담한의원
유경금	
유왕석	대구FC 서포터 클럽 구름
유하림	
유현재	
육소정	대구FC 리포터
윤명수	
윤병인	대구간송미술관
윤보람	서비스탑
윤선혜	
윤옥제	
윤재현	동원중학교
윤찬영	
윤천수	VIP축구단
윤혁준	바젤

성명	회사명
은준기	법무법인 창비
이가은	
이강문	
이경섭	
이경아	나사렛종합병원
이경호	
이규진	(주)제일종합특수강
이규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이기택	
이도희	성진포머
이동민	(주)다온산업
이동우	
이동욱	동아대학교
이동호	동호디자인
이동훈	
이래현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교사
이명희	
이미경	
이병헌	
이상기	모텔 붐
이상대	
이상진	삼성화재
이상혁	명가
이상훈	
이상희	
이석민	EZ컴퍼니
이석형	
이석화	
이성길	개인
이성도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이성백	VIP축구단
이성진	
이소정	
이수희	
이승수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승재	화성산업
이시우	
이시행	밀양시청
이영빈	팔봉
이영주	루시드

성명	회사명
이옥희	
이원수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이인영	서민숯불구이
이인혁	
이재훈	
이정원	(주)건동
이종길	금성농협 가음지점
이종원	
이종훈	가창본한의원
이주용	북성신용협동조합
이준희	
이진형	
이창형	회사명
이창환	가야축산
이해동	
이현호	
이형석	Emart
이희숙	(주)우진설비
이희연	조은안과의원
이희정	
임상한	
임소명	
임현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임희주	드림병원
장규영	두산공작기계
장나원	고아라뷰티
장문수	
장민준	
장성곤	
장연주	
장영래	
장원석	
장윤영	카츠현 동대구점
장재민	
장지은	
장현찬	ABIMAN ENG
전강욱	조아전자 주식회사
전상범	
전성진	신양정밀
전성호	

대구FC Angel Club 엔시오

성명	회사명
전우찬	(주)해밀
전은실	
전은찬	
전재현	
전해신	VIP축구단
전현욱	
정구환	
정동석	
정동호	
정병수	
정서경	
정성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승호	
정영록	복현중학교
정우영	
정운주	한국항공
정원효	
정유진	
정윤민	
정은상	
정재민	브이성형외과
정종엽	
정종율	대구시청
정현주	태경레이저
정휴채	공덕설비주식회사
정희석	
정희원	동복보건지소
정희진	
제우준	제반드로
조기현	
조동진	VIP축구단
조민경	
조순제	KEIK
조영래	
조영석	
조영재	테라체
조일현	경북대학교
조채용	동성산업
주명희	
주현우	M금융서비스

성명	회사명
지현우	자영업
진성록	영남이공대학교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진형록	
차대욱	네오테크
차승화	
차재원	
차효준	씨앗과땀
채근석	부경상사
채명신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채수완	
채종영	대한민국 공군
채현미	
천서연	에스베르
천의강	
최기진	디에스피이엔지
최두환	한의
최만석	신앙과 역사문제 연구소
최병천	진성테크
최서현	
최석용	경창산업(주)
최석호	
최송화	
최승환	지멘스 헬시니어스(주)
최영찬	미성섬유
최용대	대진공업사
최원식	경희한의원
최유정	
최육사	(주)네오플
최의택	달서구축구협회
최재락	지에이코리아(주) 행복플러스지사
최헌수	
최혜윤	
최호일	법무부
최희윤	국민대학교총동문회
태해석	VIP축구단
피성환	
하종찬	아이씨로지스
하주홍	대구교도소
한동애	시크릿

성명	회사명
한동주	
한병준	태화디앤씨
한승욱	한국은행
한종건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한종성	GS리테일
한현화	
허난영	(주)캔유여행사
허재	SK하이닉스
현병철	대구광역시청
홍성혁	아이디온한국협농
홍재범	곽병원
홍종욱	동우크린
황덕현	
황득주	
황미하	노보노디스크제약
황민규	디자인업
황성희	벤디스
황승준	삼삼종합건설
황승태	티지브레이커스
황유빈	
황지성	

대구사랑은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2024년에도 엔젤클럽은 다시 한번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가입문의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전화 053-602-7307
팩스 053-602-7306

대구FC엔젤클럽 홈페이지
www.dgfcangel1004.co.kr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1,000만 원 이상
- 일반 100만 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12만 원 이상 / 월 10,000원 ※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드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엔젤 릴레이
-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

홈경기 직접관람 응원
- 대구FC 홈경기 시 엔젤존 운영(DGB대구은행파크 W1, W2, W3)

※엔젤존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클럽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 권유

혜택

- 가입기념품
- 행사 참여
- 홈경기 관람(후원금 액수 내에 가능)

Angel Club 가입신청서

※ 가입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명			가입번호	
회사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주소	※ 우편물 수령 주소						
E-mail			추천인				

후원 금액

☐ 월 83,000원 – 자동이체
☐ 1,000,000원 –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1,000,000원 이상 – 사무국 문의
※후원금은 대구FC 계좌로 입금되며, 경비처리 관련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법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 카드결제 시 사무국으로 통보바랍니다.
☐ 자동 이체 : 예금주 : _____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엔젤클럽 회원 추천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주위의 뜻있는 분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한다.
※ 추천인이 있을 경우 엔젤클럽 사무국(아래 연락처 참조)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42064)
• 팩스 송부 : 053-602-7306, 메일주소 daeguangel@naver.com
※ 문의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구FC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FC엔젤클럽

걱정, 근심은 제로
기쁨, 행복은 두배



행복한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코로나19 극복기금 20억 후원
따뜻한 동행 캠페인 성금 10억 후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대구·경북 체육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서문시장 화재 복구 성금 후원
포항·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영덕 태풍 피해 복구 성금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경고: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특별한 하루

뮤지컬 맘마미아!

★★★★★

경쾌함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맘마미아의 힘에 감탄하며
- water7*** (인터 파크)

엄마와 함께한 맘마미아!
공감할 수 있는 가슴 찡하고 유쾌한 대사들!
정말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 bbqn*** (인터파크)

아이를 임신했을 때 관람했고,
초등학생이 된 아이와 함께 본 맘마미아!
최고입니다.
- sis6*** (인터파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였고 아름다웠다
- jcn05*** (인스타그램)

BENNY ANDERSSON & BJÖRN ULVAEUS'

MAMMA MIA!™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2023. 12.15(금) ~ 12.25(월) 대구오페라하우스

최정원 | 신영숙 | 홍지민 | 김영주 | 박준면 | 김정민 | 이현우 | 김환희 | 최태이 | 장현성 | 민영기 | 김진수 | 송일국 | 김경선 | 김시영

화~금 7시30분 / **토~일** 2시, 6시30분 / **월** 공연없음 (단 12.25 (월) 2시) **OP석** 15만원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문의 예술기획 성우 www.goconcert.co.kr 1599-1980 예매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주최 每日新聞社 TBC 주관 (주)예술기획 성우 제작 신시컴퍼니 후원 삼익THK

기업·단체 관람 문의 :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CLEAN AIR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HEALTHY HUMIDIFIER KACA & KAHSE

대영전자주식회사 DAEYOUNG ELECTRONICS CO., LTD.

우리집 안심安心 공기청정기

VVINT

빈트



빈트 자연가습공기청정기



자연가습.공기청정기 미니.공기청정기 항균.공기청정기 자연기화.가습기

WINT 빈트는 **'Value & Vision in Technology'**의 약자로 고객에게 가치있는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그날까지 빈트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빈트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만을 약속합니다.

빈트 홈페이지 www.vvint.co.kr
구입문의 010-8259-4778
서비스센터 1566-3990

Angel Club

계간 〈CITY OF ANGEL〉 2023 Vol.10 | 2018년 10월 10일 등록 | 등록번호 수성, 바00011 | 발행일 2023년 12월 11일 | 발행기관 (주)엔젤클럽



대구FC 황재원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국가대표)